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세계문화유산
통도사 기념메달
마하몰
www.mahamall.co.kr
에서 만나세요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7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10월 13일)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晩秋, 국화에 감싸인 부처님 황금빛으로 평온히 눈 감은 부처님이 국화 향에 둘러싸여 고요히 누워 계신다. 조계사 국화화엄축제에서 활짝 핀 노란 국화들이 부처님 곁을 감싸며 마치 자비와 평온함을 지켜주는 듯 하다. 온화하고 고요한 미소는 마음에 깊은 위로와 안식을 전하고, 번잡한 일상 속에 잔잔한 울림을 남긴다. **글 · 사진=정현선 기자**

조계종 내년도 예산 909억원 확정

11월 5~6일,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서 승인

조직개편 따른 예산 추경 예정
선명상센터 건립 예산 반영돼
후반기 종회의장에 주경 스님
"종단발전 위한 논의 이뤄져야"
태효·경암 스님 부회장 맡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5~6일 진행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을 확정했다. 조계종 2025년 예산은 총 909억5000만원이다.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315억74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 증가했다. 이는 중앙분담금, 직할분담금, 법인분담금 2024년 예산에 준해 편성한 것으로 직영분담금은 2024년 대비 5% 증액했다. 특별분담금은 1.1%, 문화유산분담금은 2.5% 증액했다. 기타 세입은 전년도에 준해 편성했다. 교육원과 포교원 인건비를 총무원으로 통합하고 각 원에 따른 사업비는 2024년 대비 동결 수준이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사업 예산은 추경 예정이다.

특별회계는 593억8375만원으로 9.2% 감소했다. 양평불교문화재 연구시설 사업이 종료한 결과다. 2025년부터는 10·27법난기념관과 선명상센터 건립이 시작돼 이에 대한 예산도 특별회계로 잡혔다. 10·27법난기념관 기본설계에 76억원이, 선명상센터 건립 자부담금 1억원과 철거비가 5억원 편성됐다. 국제선명상대회 자부담금도 9300만원 배정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우봉 스님은 "이번 예산은 내년 4월 1일 삼원 통합 이전인 1월부터 3월 31일까지의 예산이며, 3월 종회 때 다시 추경을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18대 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현 의장 주경 스님이 선출됐다.

후반기 의장 선거에는 법원 스님이 제정 스님을, 보화 스님이 오심 스님을, 선광 스님이 주경 스님을 추천했다. 제정 스님이 투표직전 사퇴함에 따라 오심 스님과 주경 스님이 후보자가 됐으며 중앙종회 제8조 운영규칙 5조에 의해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됐다.

재적인원 81명 중 80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주경 스님이 49표를 얻어 후반기 종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오심 스님은 31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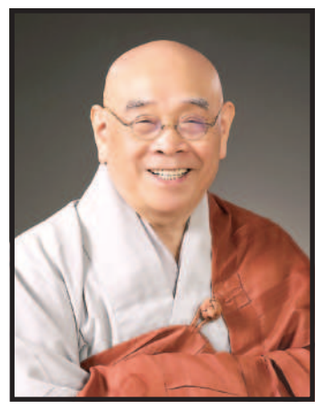
주경 스님은 동료 의원스님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의원스님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들어 하반기 중앙종회를 꾸려가겠다"면서 "종회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해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중앙종회 수석부회장은 태효 스님이, 차석부회장은 경암 스님이 맡게 됐다. 사무처장은 재안 스님이 소임을 맡았다.

상임분과위원장도 선출됐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심우 스님, 교육분과위원장에 도성 스님, 포교분과위원장에 가섭 스님, 사회분과위원장에 진각 스님(12교구), 재정분과위원장에 태진 스님, 호법분과위원장에 삼조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 진각 스님(15교구), 문화분과위원장에 정운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장은 일화 스님으로 정해졌다. 6인 위원 구성은 위원장과 의장단에 위임됐으며 원경 스님, 탄하 스님, 덕림 스님, 정관 스님, 도림 스님, 성원 스님으로 최종 확정됐다. **〈종회 관련기사 2면〉**

역경·포교 이끈 선지식 여산당 혜거 대종사 원적

11월 4일 오전 9시 51분 입적
탄허 스님 은사로 출가해 수학
탄허기념박물관 열고 참선교육
청소년 인성프로그램 개발 기여



한국불교 역경불사와 강남 도심 포교 이끌었던 선지식 여산당 혜거 대종사〈사진〉가 11월 4일 오전 9시 51분 원적에 들었다. 법랍 64세, 세수 80세. 대종사의 분향소는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 마련됐다.

1959년 삼척 영은사에서 탄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거 대종사는 1961년 월정사에서 범룡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구족계를 받았으며, 김제 흥복사 등에서 수선안거했다. 1988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금강선원을 개원하고 참선과 교학을 중심으로 전법·포교행을 펼쳤다.

혜거 대종사는 30여 년간 경전반을 상설·운영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부처님의 교리를 강의했으며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상담과 경전 강의, 불교TV 경전 강의 등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했다.

또한, 전국금강경강송대회를 개최해 조계종의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불자들에게 전파했으며, 마음치유와 인성프로그램을 개발해 어린이 청소년의 인성프로그램 보급에 이바지했다.

혜거 대종사는 2005년 탄허불교문화재단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은사 탄허 스님의 사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데도 힘썼다. 2010년 준공된 탄허기념박물관 건립불사를 이끈 것도 혜거 대종사다.

스승이 그랬던 것처럼 혜거 대종사도 현대 한국불교의 역경 불사 이끈 주인공이었다. 동국역경원장을 역임했던 혜거 대종사는 지난 2016년부터 〈화엄경〉 주석서인 〈화엄경소론찬요〉 역경 불사를 시작했다. 올해에도 원본 〈화엄경소론찬요〉 120권 중 제74권부터 제97권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17~21권이 편역·출간됐다. 혜거 대종사의 이번 역경불사는 2025년 2월에 총 26권으로 완역될 예정이었다.

임종게

물은 물 산은 산/ 이 소식을 그 어디 물어볼까?
푸른하늘 웃음소리에/ 사흘 귀 먹었네
동령에 일어난 구름/ 서풍에 사라지니
눈앞의 청산에/ 맑은 바람과 달

水水山山是何問
碧空笑破三日聾
東嶺雲起西風吹
滿目靑山風月淸

도심포교와 역경불사에 평생을 매진한 공로로 혜거 대종사는 제16회 대원상 대상과 2018년 조계종 포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혜거 대종사 영결식은 11월 8일 오전 8시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다비식은 월정사 사리골 연화대에서 오후 1시 엄수됐다. **〈영결 · 다비식 차주 상보〉**

대종사 초재는 11월 10일 오전 10시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봉행됐으며, 2재부터 6재까지는 탄허기념불교박물관에서 봉행된다. 7재는 12월 2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엄수될 예정이다.

사 령

명)뉴미디어국 총괄국장 박 재 완
명)경영국 국장 홍 승 도
2024년 11월 1일 부 이상 2명

대 광 불 교
대광불교는 연등 시공 전문기업입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 naver.com | 010-9446-1862,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가톨릭 대회 대응은”…치열한 종무행정 점검

232회 중앙종회 정기회 종책질의

특정종교 세계대회 종단 대책 등
12건 서면 접수…현장질의 이어
나눔의집 · 충정사 폐지 문제도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11월 6일 속개한 중앙종회 정기회에서는 종무행정을 점검하는 치열한 종책질의가 오갔다.

11월 6일 오전 10시 속개된 제232회 중앙종회 정기회는 종책질의로 시작됐다. 서면 접수된 12건 외에도 현장에서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가장 먼저 선광 스님은 가톨릭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100만명 모인다는 제하의 종책질의에서 종단 대응방안과 대책 유무를 물었다.

선광 스님은 “특정종교 단체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1조원이 지원된다고 추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종교계와 사회계에 선교 파급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특정종교 선교 전략에 대한 종단의 입장과 대응 전략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부장 성화 스님은 “일부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국고보조금 예산이나 지자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원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있어 문제가 확인되면 종단 내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업 형태가 다양해 예산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언급하기도 한 성화 스님은 “세계청년대회 행사에 대해서는 종교간 형평성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진행하되 종단적으로는 한국불교 미래를 위한 전법 강화를 중심으로 종단적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더욱 중요한 과제”라면서 “미래불교를 위한 전법역량 강화를 주요 의제로 삼는 종단적 대응기구 설치와 관련해 교구본사와 중앙종회, 신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광 스님은 달라이라마 초청 법회 등의 대안을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특정종교의 선교 전략을 묵인해선 안 된다”고 강력 주장했다.

정운 스님은 ‘승려 사후 개인명의 재산 종단 출련령’에 대해 질의하며 삼보정재 유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귀속에 대한 법률 개정 계획에 물었다.

성화 스님은 “국회 정각회 등과 종단 유원장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도록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입적한 스님 재산을 원천적으로 종단에 귀속시키는 부분은 삼보정재 망실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다만 국가법령 등 제·개정은 사회 각 계층의 의견 수렴 및 다양한 이해관계의 고려 등 여러 사항이 검토되므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접수된 질의 외에도 현장 질의도 여러건 이어졌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 나눔의집에 대한 향후 운영 계획을 묻는 질의에서 성화 스님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나눔의집이 불법양로시설로 과태로 처분을 받았고, 보조금을 반환하며 이로 인해 앞으로 5년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설명하며 “나눔의집은 더 이상 양로시설로 운영될수 없지만 조계종은 설립 취지를 살려 할머니들이 남긴 역사적 유물을 보존하는 역사관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인 스님이 “종단 안팎으로 관심이 많은 나눔의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지적하자 성화 스님은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금산사 등과 대안을 모색 중”이라며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폐사가 검토된 남산 충정사도 언급됐다. 제정 스님은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곳으로 박원순 시장 때부터 인수가 검토된 곳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냐”고 개탄했다. 성화 스님은 “수의계약을 통해 매입하려 했지만 공공재산은 매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전승관도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 충정사는 감정가 200억원에 달하며, 기채를 받아 매입한다고 해도 월 이자로 4000만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종단은 현재 부지를 매입하기도, 건물을 짓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미등록 사찰에 대한 관리, 신촌 봉원사 토지 활용, 징계자 사후관리와 미등록법인 관리, 3교구 신흥사 말사 낙산사 특별감사 등이 종책질의로 올랐다.

태고종 강원 총동문회, 학인스님에 장학금

11월 6일, 장학금 수여식 개최
명현 · 명효 · 무상 · 법견 스님에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가 후학들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인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중앙승가강원 총동문회(회장 성관 스님)는 11월 6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에서 ‘2024년 한국불교 태고종 중앙승가강원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회장 성관 스님은 심사를 거쳐 선발된 성적 우수자 명현(대교과)·명효(대교과)·무상(사교과)·법견(사교과) 학인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다.

성관 스님은 “스님들이 수행을 잘하는 방편으로 강원을 다니는데 얕은 지식으로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지행상방 분복하비(志行上方 分福下比), 뜻과 행실은 나보다 나은 사람과 견주고 분수와 복은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라는 선인의 말처럼 하심하는 수행자의 덕목을 잘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강원을 졸업한 종단 중진스님들이 후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전달식을 준비했다”며 “중앙승가강원의 노력이 종단 차원의 공감으로 이어져 모든 종도가 배우고 익히는 일은 일상다반사로 여기는 풍조가 보편화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장학금을 받은 장학대상자들은 총동문회 선배스님들의 진심어린 격려를 계기로 더욱 부처님 교학의 깊은 묘리를 익히고 깨치는 일에 전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재홍 스님도 “교육의 효과가 금방 드러나지 않겠지만 교육·장학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학인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종단도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응원했다.

김내영 기자

진각종 32대 통리원·교육원 집행부 구성

능원 정사, 통리원 · 교육원 인사
총무 법운 · 교무 수각 정사 등



11월 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한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제32대 통리원, 교육원 집행부 인선을 단행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진각문화전승원에서 통리원·교육원 부실장 및 국장에 임명식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임명식에서는 통리원 총무부장 겸 서울교구청장에 법운 정사(수원 유가심인당 주교)가, 교육원 교무부장 겸 밀교신문사 편집인에 수각 정사(포항 보정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또 재무부장 수혜 정사(대구 의밀심인당 주교), 포교부장 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장 원영 정사(서울 관음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실장 효광 정사(대전 응화심인당 주교), 진각대학원 교학처장 석인 정사(인천 덕화심인당 주교)가 임명장을 받았다.

이어 국장급에는 △통리원 총무국장에 혜심 정사(청주 각계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무국장에 의성 정사(성남 대원심인당 주교) △통리원 기획국장에 학봉 정사(제주 식재심인당 주교) △사서국장에 도원 정사(고양 밀엄심인당 주교) △건설국장에 인공 정사(제천 장엄심인당 주교) △포교국장에 일연 정사(창원심인당 주교) △전산미디어국장에 보당 정사(서울 명선심인당 주교) △예경국장 겸 서울교구 종무국장에 도연 정사(서울 법륜심인당 주교), 교육원 교법연구국장에 대경 정사(대구 낙산심인당 주교)를 각각 임명했다.

능원 정사는 “전 종도가 새 집행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그에 걸맞게 각자의 자리에서 종단의 발전을 위해 정진해달라”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해인총림 방장에 대원 대종사 추대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에 학산 대원대종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원한 제232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해인총림 해인사 방장 추대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앞서 학산 대원 대종사〈사진〉는 9월 30일 열린 ‘해인총림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바 있다.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평생을 걸쳐 노력해 온 대표적 선지식이다. 1956년 상주 남장사에서 고암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해 1958년 사미계를, 1962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1966년 일대시교를 이수한 뒤 혼해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받은 대원 대종사는 이후 21년간 제방선원을 다니며 선지식들의 회상에서 용맹정진했다. 2001년 오등시민선원을 개원한 대원 대종사는 간화선법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진력해왔다.

2014년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2022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됐다. 임은호 기자

대종사·명사 법계 특별전형 만장일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가 11월 6일 속개한 제232회 정기회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비구)·명사(비구니) 법계 특별전형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대종사 법계 대상은 환성 스님(직할교구), 혜강 스님(직할교구), 심경 스님(용주사), 정완 스님(용주사), 성도 스님(용주사), 성월 스님(용주사), 정암 스님(월정사), 삼지 스님(월정사), 삼보 스님(월정사), 현각 스님(월정사), 무이 스님(월정사), 지욱 스님(직지사), 인호 스님(동화사), 지영 스님(은해사), 법일 스님(은해사), 운성 스님(불국사), 종본 스님(해인사), 항결 스님(해인사), 석공 스님(범어사), 범산 스님(범어사), 정만 스님(범어사), 상경 스님(통도사), 정수 스님(통도사), 평상 스님(금산사), 지현 스님(송광사), 보각 스님(대흥사), 재연 스님(선운사) 등 27명이다.

명사 법계 대상은 선광 스님(월정사), 명주 스님(해인사), 재근 스님(통도사), 법륜 스님(금산사), 일지 스님(선운사), 성수 스님(선운사) 등 6명이다. 이날 종회의 동의를 받은 스님들은 법계법 제12조에 의해 원로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종사·명사 법계를 품수 받는다.

임은호 기자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 영캠프

일 시
2024. 11. 12.(화) 오후 3시 - 6시

장 소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문무관

주인공



영캠프는 자승 대종사의 깊은 뜻에서 비롯된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불자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셨으며,
동국대학교 돈관 이사장 스님께서 이 염원을 이어받아 영캠프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해 주셨습니다.
불교의 아름다움과 깊이를 새롭게 느끼고,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dongguk UNIVERSITY WISE CAMPUS

영캠프는 동국대학교 WISE(와이즈)캠퍼스 학생기획위원단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행사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펼쳐진 '선명상 진수'

봉은사, 11월 3일 '선명상의 밤'
진우 스님 법주로 선명상 실참
"평안 상태 이어지면 정토세계"
500여 불자 '우선멈춤' 고요 만끽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선명상의 밤에는 500여 불자들이 동참, 다양한 선명상을 실참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선명상을 직접 체험하는 법석이 서울 도심 속 천년고찰 봉은사에서 펼쳐졌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1월 3일 경내 미륵광장에서 '봉은사 선명상의 밤'을 거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지도법사로 나선 이날, 500여 불자들은 5분 선명상을 비롯해 다양한 선명상을 실참하며 가을 밤을 만끽했다.

명상에 들기 전, 봉은사 명상연구소장 일감 스님은 간단한 선명상 방법을 안내하고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할 것을 당부했다. 5분 선명상을 시작으로 차 명상과 싱잉볼 명상, 소리 명상, 춤 명상, 바느질 명상 등이 이어졌다.

법주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선명상의 의미와 활용법 등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우선멈춤'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우선 멈춘 5초에서 하루 5분, 10분, 20분씩 시간을 늘려 가다보면 한 시간이 되고, 두 시간이 되면서 24시간 명상이 계속되고 그야말로 '몽중일여'가 된다"면서 "꿈을 꾸면서도 선명상이 이어지면 악몽 없이 24시간이 평안한 상태가 되고 사바세계가 정토세계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선명상을 적용할 것을 강조한 스님은 "개개인이 선명상을 하며 가족에게도 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우선 멈춤'을 강조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Q&A 시간을 통해 대중들의 궁금증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대중들에 한발 더 다가가기도 했다.

직장생활 중 잡념으로 선명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고민에 대해 진우 스님은 "잡념을 없애려 연연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선명상 중 이런저런 생각을 이어가다보면 어느 순간 잡념이 잡념이 아닌 순간들이 올 것"이라면서 "처음부터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5분, 10분씩 시간을 늘려 볼 것"이라고 조언했다.

절에 함께 오지 않는 자녀를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자식을 설득할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일침하며 "부처님 법을 정확히 알고 신심이 깊어진다면, 그 모습을 보고 자식도 함께할 것이니 더 공부하고 신심을 내라"고 말했다.

이날 선명상의 밤에 참여한 이홍신 불자(송암)는 "하루 5분 선명상에 대해 관심이 많아 시도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았는데, 원장스님의 명쾌한 가르침으로 계속할 원력을 얻었다"면서 "앞으로 꾸준히 시간 내서 명상 시간이 5분이 10분, 20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희 불자(길상화)도 "500명이 모여서 명상이 될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고요한 시간들이 이어져 마음이 속 시끄러움이 가라 앉았고, 다같이 함께 해서 힘을 더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특히 일상생활 속 실참을 통해 선명상이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팔정도 부처님 봉안 60년, 건학이념 되새기자"

동국대, 팔정도 광장서 기념법회
'청동석가여래입상' 제작, 봉안해
광장 중앙 '팔정도 동판' 설치 계획


동국대가 11월 5일 팔정도 부처님 봉불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건학이념을 되새겼다.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청동 부처님을 봉안한 지 60주년이 됐습니다.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학이념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11월 5일 교내 팔정도 광장 성상 앞에서 '팔정도 부처님 봉불 6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는 '청동석가여래입상'의 봉불 60주년을 기념하고 불교 정신을 토대로 한 동국대 건학이념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1964년 11월 5일 봉안된 '청동석가여래입상'은 당시 동국대 총동창회가 건립을 추진했다. 7척5촌(225cm)에 달하는 불상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을 역임한 김영중 선생이 맡아 제작했다. 청동석가여래입상 경과보고를 맡은 교법사 현담 스님은 "교내 중앙에 세워진 성상(聖像)은 동국대의 영원한 지표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자비를 이 배움터에 어리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법어에서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 청동 부처님을 봉안한 지 60주년을 맞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동국대의 건학이념 정체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는 시무외인(施無畏印)과 모든 중생의 소원을 들어주는 여원인(與願印)의 수인을 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두려움은 소멸하고 소원은 모두 성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재웅 총장은 축사에서 "청동석가여래입상은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며 "팔정도 동판을 새로 제작해 광장 중앙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팔정도를 몸으로 체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상 주변을 돌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명호를 외는 '탑돌이 정근'으로 법회는 마무리됐다. 법회에 동참한 덕경스님(동국대, 불교학부 1학년)은 "늘 동국대 가람에서 묵묵히 대중들을 보호하시고 소원을 들어주시는 팔정도 부처님의 60주년을 기념하는 법회라 뜻깊었다"며 "앞으로 팔정도 동판을 새로 설치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을 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민재 기자

봉은사, 경주 열암곡 마애불 친견 법회

11월 5일, 마애불 성지순례서
"천년을세우다 불사 성취 기원"



봉은사 사부대중이 1300여 년 전 넘어진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바로 세우는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11월 5일, 경북 경주 열암곡 마애불을 친견하고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다라니기도'를 올렸다.〈사진〉 조계종 핵심 종책사업인 '천년을 세우다'의 원만 성취를 위해 봉은사 사부대중이 발심한 것.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열암곡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을 비롯한 봉은사 소임자 스님과 신도진 등 사부대중 250여 명이 참석했다.

다라니기도로 시작된 법회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으로 이어졌다. 원명 스님은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열암곡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불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전법도생, 불교중흥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이에 동참한 사부대중의 염원이 열암곡 부처님이 바로 일어나실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법회에서 열암곡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은 "봉은사 대중이 먼 경주까지 와서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친견하는 것은 불자의 사찰 순례와 같은 의미"라며 "전국의 수많은 사부대중의 염원으로 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불사의 원만 성취를 기원한다"고 발원했다.

한편, 경주 열암곡 마애불은 2007년 5월 22일 경주 열암곡 절터 조사 중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불상이 새겨진 바위는 폭 4m, 높이 6.8m, 두께 2.9m에 무게 약 80t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다. 불상은 4등신의 입상 형태로 편단우견(偏袒右肩) 등 통일신라시대 불상 특징을 갖고 있다. 조계종은 2023년 4월 19일 '천년을 세우다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열암곡 마애불 바로 세우기를 종단 핵심사업으로 이끌고 있다. 김가령 기자

"인도 여성의 건강한 내일 지켜주세요"

전국비구니회, 11월 22~28일
분황사 의료센터에서 의료캠프
여성질환 의료 지원 후원 모금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의료 환경이 열악해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인도 여성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의료 지원에 나선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는 11월 22~28일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의료센터를 방문해 의료캠프를 진행한다. 의료캠프에서는 여성질환 사각지대에 놓인 현지 여성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의료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한 의약품을 전달한다. 전문적인 상담과 진료는 여성질환 전문의 여련화 불자가 맡는다.

일정에는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과 운영위원장 진명 스님, 수석부회장 수경 스님, 기획실장 금해 스님, 복지부장 보은 스님, 국제부장 정호 스님, 국제국장 자운 스님 등이 동참한다.

의료 지원을 토대로 분황사 의료센터 운영 상황과 차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

비구니회는 "여성질환 사각지대의 현지 여성들에게 의료 지원과 의약품을 제공해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고자 의료캠프를 준비했다"며 "십시일반 마음을 모아주면 의료캠프 행사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작은 도움이라도 크게 받겠다"고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분황사 의료센터는 전국비구니회와 백천문화재단의 원력으로 2023년 2월 27일 개원했다. 현지 운영은 전국비구니회가 맡고 있다. 의료센터는 514m²(약 155평)에 2층 규모로 1층에는 진료실과 치료실이 조성돼 있다.

후원 모금 : 국민은행 208601-04-082605 전국비구니회 국제부

김내영 기자

성지순례자의 도반 마하연투어
예약·상담 02-365-7747 마하연투어
www.mahayeon.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39(우정에쉐르) 1401호






대만 완벽 순례 4박 5일
■ 일 정
불광사-중대선사-자제공덕회-태로각협곡-법고산사-자항사


베트남+캄보디아 4박 6일


순수의 나라 라오스 4박 6일


뜨거운 태양이 빛나는 불교의 나라 태국 3박 5일

“五戒 지키고 보살행 실천해 참사람 되길”

한마음선원 수계법회

11월 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258명 수계받아 불자로 살길 서원
이사장 혜수 스님, 보살행 강조해
가족 수계자 눈길, ‘불자가족’ 탄생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한마음선원이 11월 3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제36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신도에게 연비를 하고 있는 모습.

“저희 수계자들은 발원합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며,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여 한마음으로 화합하고 모두가 지혜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발원합니다.”

한마음선원 신도들이 오계를 받아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길 서원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11월 3일 안양본원에서 ‘한마음선원 제36차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대행 선사를 증사로, 이사장 혜수 스님을 계사로 청해 진행됐다. 258명의 수계자는 삼귀의계와 오계를 받아 불제자로 새로 태어났으며, 4360명은 연비(燃臂)를 받으며 불자로서 정진할 것을 발심했다.

이날 수계법회는 예불을 시작으로 삼보를 찬탄하며 수계를 고하는 ‘거향찬’, 삼보를 청하는 ‘청성’, 법을 청하는 ‘청법삼배·청법가’, 입정, 대행 선사 영상법문, 수계사를 청하는 ‘청사’, 오계 설법, 팔을 태우며 업장을 참회하는 ‘연비’, 수계자 발원, 수계첩 수여, 이사장 혜수 스님 말씀, 선법가 ‘일체제불의 마음’ 합송, 사홍서원 순으로 이어졌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오계만 잘 지켜도 참사람이 될 수 있다”며 “대행 큰스님께서는 오계를 갖는 것은 여러분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하셨다. 진짜 보살이 돼서 보살행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를 받은 남성 재가불자는 ‘모범 범(範)’자를, 여성 재가불자는 ‘믿을 신(信)’자를 법명으로 받았다. 수계자 대표 송가헌(56, 안양본원) 씨는 “오늘 1호로 수계를 받게 돼서 정말 감격스럽다. 수계를 계기로 한마음선원에서 열심히 마음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모든 것은 ‘나’에서 나온다고 배웠다. 마음공부를 통해 내가 밝아져서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한 수계법회에 온 가족이 동참해 ‘불자 가족’이 탄생했다. 가족과 함께 수계를 받은 김금미(38, 부산지원) 씨는 “수계를 받으니 올바른 길로 인도받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밝게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면서 “대행 선사 가르침대로 오계를 지키고 보살행을 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차 연비를 받으며 부단한 정진을 다짐하는 불자도 있었다. 조주리(27, 안양본원) 씨는 “오랜만에 절에 와서 연비를 다시 받게 됐는데 앞으로 더 정진해야겠다”며 “언제나 좋은 가르침을 주고 좋은 길을 인도해 주는 대행 선사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선원 제36회 수계법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온라인 중계됐다.

월간 ‘불광’ 50돌…“새로운 100년 준비”

11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서
“영상시대 콘텐츠 생산 진력”
50주년 특집 사진집 발간도
1974~2024년 불광 역사 담아


지홍 스님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합니다. 영상과 온라인 시대 콘텐츠 제작에 진력할 것입니다.”

불교계 대표 잡지 월간 〈불광(발행인 지홍 스님)〉이 11월 6일 서울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창간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불교 현대화와 대중화를 추진한 광덕 스님(1927~1999)이 창간한 월간 〈불광〉은 1974년 11월 창간호를 발간했으며, 2024년 11월 창간 50주년을 맞았다. 이날 기념식에는 발행인 지홍 스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전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 류지호 불광미디어 대표, 한명우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발행인 지홍 스님은 기념사에서 “종로 대각사의 작은 방에서 시작한 월간 〈불광〉이 우리 사회에 불교 소양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창간 50주년 맞이한 〈불광〉은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불광〉은 종이 잡지와 책을 만드는 회사에서 더욱 발전해 영상과 온라인 시대의 콘텐츠 생산에 진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불광〉을 발행하고 있는 불광미디어는 창간 50주년을 맞이해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불광 50주년 사진집〉 특집호를 발간했다.

김민재 기자

“성소수자 차별 없는 평등 세상 기원”

사노위, 11월 2일 인천 부평역서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여



자비와 포용의 정신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불자들이 성소수자들과 연대 행보를 이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는 11월 2일 인천 부평역 일대에서 열린 ‘제7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해 성소수자 연대의 뜻을 밝혔다.〈사진〉

이번 축제는 ‘거침없이 멈춤없이 오늘도 무지개 인천’ 슬로건으로 열렸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등 주최 추산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노위에서는 부위원장 시경 스님, 위원 동신·도승·법정 스님이 동참했다.

이날 사노위 부위원장 시경 스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 주변엔 우리 존재를 부정하고 혐오하며, 차별하는 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싸우며 만들어 온 역사가 허무했던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의 이러한 무지갯빛 해방물결이 곧 혐오의 마음을 녹여 모두가 평등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회로 만드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원 스님들은 차별 없는 세상을 발원하며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행진에도 참여했다. 김가령 기자

은정재단, 은정장학금 전달식…“인재불사 앞장설 것”

11월 2일 동국대 중강당서
총 8600만원 장학금 전달
나란다축제 시상식도 함께


은정장학금 전달식에서는 개인 57명에게 8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미래 불교를 견인할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지난 9월 열린 나란다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성월 스님, 이하 은정재단)은 11월 2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제21회 은정장학금 전달식 및 제16회 나란다축제 시상식’을 진행했다.

은정장학금 수여와 함께 본격적인 시상식이 막이 올랐다. 불교단체 1곳(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을 비롯해 지혜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김다연(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김미주(과천외국어고) 등 대학원생 2명, 대학생 15명, 고등학생 25명, 중학생 14명, 초등학생 1명 등 총 개인 57명에게 860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나란다축제 단체 대상은 조계사 어린이 법회에 돌아갔다. 최우수상은 청담고·구룡사 어린이 법회가, 우수상은 화엄사·봉선사 어린이 법회, 해동고 등 6팀이 수상했다.

문체부 장관상인 대상은 이우빈(구룡사, 초등부), 정효현(학남중), 이도경(청담고) 학생이 차지했다. 초등부 17명, 중등부 37명, 고등부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나란다 K-댄스경연대회 대상(조계종 총무원장상)은 ‘솔리즈’ 팀이, 은정전통국악예술경연대회 대상(문체부 장관상)은 김민서(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이 받았다.

은정재단 이사장 성월 스님은 인사말에서 “월암당 정대 스님은 인재불사의 크나큰 원력을 세우셨고 ‘은정재단’을 설립하셨다. 이는 오로지 불교중흥을 위한 원력보살의 실천행”이라며 “앞으로도 은정재단은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인재불사와 불교중흥의 가치를 앞장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재 기자

종회 문화분과위, 불교박물관에 발전 기금

“불교문화 전승 · 발전 최선”



조계종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불교문화 진흥에 정성을 보탰다.〈사진〉

문화분과위원회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불교중앙박물관장실에서 불교중앙박물관에 불교문화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위원장 종봉 스님은 “문화분과 소관인 불교중앙박물관은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교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중앙박물관이 노력한 만큼 빛나길 바란다”며 “종정 스님(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께서 (문화분과위원회에) 주신 격려금이 있었는데, 박물관 발전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위원스님들과 마음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위원회 스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은 박물관 직무 수행에 큰 힘이 됐다. 늘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김내영 기자

“부처님 가피로 합격하길!”…대불련, 고3 수능 응원

전국 14개 종립학교 420여 명에
총 14가지 선물 담긴 ‘응원 박스’


현밀 스님과 주 작가는 캐릭터 뭉밀이가 그려진 ‘만사형통 키링’과 포스트잇, 합격을 부르는 스티커와 ‘깨닫다·광명진언 부적 스티커’를 준비했다. 더불어 비타민과 홍삼, 초콜릿, 과자 등 간식을 포함한 핫팩, 휴대용 화장지 등 총 14가지 선물을 전달했다.

11월 14일,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나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주현우, 이하 대불련)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동대부여고, 동대부고를 비롯해 전국 14개 종립고등학교 불교동아리(파라미타) 소속 420여 고3 수험생에게 ‘수능응원선물’을 전달했다.〈사진〉

‘수능응원선물 전달’ 사업은 대불련의 캠퍼스포교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수능 응원 박스 구성에는 조계종 포교원 불교크리에이터이자 인스타그램에서 캐릭터 ‘뭉밀이’를 그리는 현밀 스님과 불교박람회를 뜨겁게 달궜던 ‘깨닫다’ 티셔츠의 주인공인 주여진 작가가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주현우 대불련 회장과 유정현 대불련 기획팀장은 11월 1일 동대부여고에 방문, 고3 수험생들에게 수능응원선물을 직접 전달했다. 주현우 회장은 “지금까지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며 느낀 감사한 마음을 회향하고자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대입 준비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 진학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재 기자

민추본, 통일 염원 마라톤대회서 ‘퍼포먼스상’ 수상

11월 3일, 뚝섬 한강공원서
한반도기, 손피켓 퍼포먼스 등



손피켓 등을 들고 시민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알렸다. 민추본은 참가 팀 중 유일하게 슬로건을 들고 달려 ‘퍼포먼스 단체상’을 받았다.

통일을 염원하는 불자들이 ‘서울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해 퍼포먼스 단체상을 수상했다.〈사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태효 스님, 이하 민추본)는 11월 3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개최된 ‘2024 제7회 서울평화마라톤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는 서울평화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와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가 공동주최했다. ‘역사를 지키고 평화로 달리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대회는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의로운 역사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개최돼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민추본 회원들은 한반도 단일기와 전쟁반대·평화기원 구호가 적힌 홍보물을 들고 참가했다. 이들은 현수막,

민추본 측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기, 서울평화마라톤대회를 통해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민추본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불자들의 원력을 모아 평화통일 실천의 장에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서울평화마라톤대회는 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지키고 평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매년 열리고 있다. 김가령 기자

진흥원, ‘반려명상’ 화요강좌

11월 19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진흥원이 ‘반려명상’을 주제로 한 강좌를 마련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은 11월 19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성소은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 대표를 초청해 ‘반려명상’을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성 대표는 일상 속 명상을 통해 ‘온전한 나(참나)’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성소은 대표는 일본 릿쿄대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동경대 대학원에서 법학정치학 석사, 한국성공회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라는 선불교의 법어에 이끌려 3년간 참선, 출가수행을 했다. 선방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참구하던 중 깨달음의 경계를 체험하고 환속해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를 이끌고 있다.

강의는 무료이며,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tv’에서도 강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02-719-2606

김민재 기자

이 정도면 커플맛집!…'나는 절로' 커플 7쌍 탄생

백양사 '나는절로' 현장을 가다

전남 장성=김가령 기자

청춘남녀 사찰 만남의 장 '나는 절로, 백양사'에서 총 7쌍의 커플이 탄생하며 참가자 과반이 인연을 찾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보건복지부와 주최한 '나는 절로'가 11월 2~3일 단풍철을 맞아 오색빛깔로 뒤덮인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개최됐다. 이번 '나는 절로, 백양사'에서는 10쌍에서 12쌍으로 참가자 긴급 증원까지 이뤄져 시작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나는 절로는 한국형 히어로의 대표, 홍길동의 고향 전라남도 장성에서 개최되는 만큼 참가자들의 별명이 길동, 길순으로 통일됐다. 다양한 성씨로 구분된 길동과 길순은 각자의 성씨를 눈에 익히고 자신과 같은 성씨를 가진 이성을 찾아 눈도장을 찍기도 했다.

백양사 교육관에 모인 참가자들은 '나는 절로'의 시작을 알리는 입재식에 참여했다. 백양사 성보박물관장 동찬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흔히 행복을 거창하고 얻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행복은 작고 소소한 것에서 비롯된다"면서 "여러분도 인연이 작고 소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을 믿고 매 순간 행복해질 수 있는 인연 맺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인연 찾길 기원하는 청실·홍실 단주를 전달받은 참가자들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다. 연령, 직업, 취미 등을 밝힌 참가자들은 저마다 다른 이상형을 설명했다.

'나는 절로'로 사행시를 지어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각인시킨 송길동(가명) 씨는 "어릴 때부터 어차피 긴 인생 늦게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35살이 되니 갑자기 서두르고 싶어져 지원했다"면서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왔는데 돌아갈 땐 확신으로 가득차서 돌아가고 싶다"고 의지를 보였다.

친가, 외가 모두 불교도로 사찰과 인연이 깊은 고길순 씨는 결혼해 아이가 셋인 다복가정 꾸리기를 바랬다. 고길순 씨는 "회사와 집, 운동만을 오가는 바쁜 일상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가 적어 안전한 만남이 가능할 것 같은 '나는 절로'에 참여하게 됐다"며 "육아 예능 프로그램에서 아이가 많은 집을 보고 부러웠는데, 좋은 인연을 만나면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기대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나는 절로'가 11월 2~3일 장성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개최됐다. 사상 첫 긴급 증원이 이뤄진 이번 행사에는 남녀 12쌍이 모여들었다.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에 이어 이성과 돌아가며 10분간 대화할 수 있는 1:1로테이션 차담을 위해 우화루로 이동했다. 차담에서 마음에 드는 길동과 대화한 임길순 씨는 "10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은 서로의 포인트에 집중해 이야기할 수 있어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나는 절로, 백양사 편의 하이라이트는 사찰음식의 명장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이었다. 국내외에 한국의 사찰음식을 알리고 '셰프들의 셰프'라고 불리는 정관 스님이 이번 '나는 절로'에서 인연에 목마른 청춘남녀를 위해 인연법사로 나선 것이다.

정관 스님은 백양사 천진암에 방문한 길동과 길순에게 특별한 선택의 시간을 선사했다. 공양간의 각자 자리에 앉은 길동들 앞에 놓인 호박, 가지, 마늘 등 갖은 채소들. 길순들은 자신이 마음에 둔 길동 앞에 놓인 채소를 재빠르게 살피고 채소바구니에서 동일한 채소를 집어가야 했다. 1분여간 눈치만 보던 길순들은 같은 채소를 잡고 서로 놀라하거나, 채소를 잘못 잡았다며 아쉬운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같은 채소로 짝이 된 길동과 길순들은 정관 스님과 함께 저녁공양 반찬이 될 사찰음식을 만들었다. 길동과 길순은 요리를 하며 서로 소매를 걷어주거나 역할을 바꿔 요리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11월 2~3일, 장성 백양사서
정관 스님 사찰음식 체험 등
남녀 12쌍 중 커플 7쌍 탄생
'현커 기원 금일봉' 수여식도
12월 총동창회 공주 연수원서

이번 사찰음식 체험 프로그램의 기획 전반에 참여한 정관 스님은 많은 젊은 세대가 '나는 절로'에 참여하길 발원했다. 스님은 "인연의 성사는 편안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그런 마음은 자신의 들뜬 에너지를 방하착(放下着)하는 순간 만들어진다"면서 "젊은 세대들이 '나는 절로'를 단순한 소개팅의 장소가 아니라 고즈넉한 사찰에서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더불어 인연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더욱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접 만든 사찰음식으로 가진 저녁공양 시간에 이어 '나는 절로 레크레이션'이 시작됐다. 개인별, 조별로 진행된 레크레이션에서 길동과 길순은 관심있는 이성에게 "애창곡이 뭐예요?" "매운 음식 어디까지 드실 수 있으세요?" 등 세밀한 취향을 묻는 질문들을 쏟아냈다.

서로의 마음과 호감도를 확인한 레크레이션에서는 '선택하라, 길동'의 시간이 있었다. 호명된 길동들이 주어진 길순의 사진을 보고 야간데이트를 함께 할 사람을 고르는 것. 어둑해진 시간 길순들은 자신을 부른 길동과 함께 사찰 야간데이트에 함께했다.

야간데이트는 나는 절로 참가자들이 꼽는 마지막 마음 확인의 시간이다. 김길동 씨는 "로테이션 차담 시간이 있지만 이야기가 깊어질 즈음 아쉽게 끝났다"며 "야간데이트를 통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사찰 경내를 둘러보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반드시 원하는 분과 대화하고 싶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첫날 야간데이트까지 모든 활동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튿날 해가 밝자마자 최종 선택을 위해 고심했다. 참가자들은 "저는 좋은데 그 사람은 아니면 어떡해요?" "어젯밤에 따로 불러서 마음을 확인해볼걸 그랬어요" 등 근심과 후회 섞인 고민을 늘어놓다가 주최 측에 문자로 자신의 결정을 전송했다.

이로써 '나는 절로, 백양사'에서는 총 7쌍의 커플이 성사됐다. 참가자 증원까지 이뤄졌음에도 과반 이상이 커플로 맺어졌다.

최종 커플로 성사된 유한커플(유길순·한길동)은 "처음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호감이 있었는데 프로그램 내내 대화할 기회가 전혀 없어서 안절부절했다"면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레크레이션 시간 때 직접 '저한테 관심있으세요?'라고 물어봐서 이어졌다"고 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성사된 커플들을 축하하며 '현커(현실커플) 기원 금일봉'을 전달했다. 무공 스님은 "선남선녀들이 좋은 인연을 맺는 자리를 백양사에서 개최하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이어졌든, 이어지지 못했든, 지금과 미래의 인연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길게 이어가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묘장 스님은 '나는 절로'가 높은 성사율을 이어가는 이유를 사찰이 가진 복합문화적 공간 성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스님은 "한국의 사찰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공간이자 여행지, 체험의 공간 등 여러 의미와 역할이 함축돼 사찰 방문에 설렘을 준다"며 "이런 문화 공간에 만남의 기회가 열리면 여행의 설렘, 인연 만남의 설렘 모두를 느낄 수 있어 많은 이들이 호응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올해 12월과 2025년에 이어질 '나는 절로' 활동을 예고했다. 올해 전반에 걸쳐 진행된 '나는 절로'에서 미성사 된 참가자들은 12월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리는 '나는 절로 총동창회'에 다시 모인다. 또한, 2025년 봄에는 벚꽃이 아름다운 하동 쌍계사에서 새로운 참가자들을 다시 모집할 예정이다.



24명의 참가자들은 우화루로 모여 1:1 로테이션 차담 시간을 가졌다.


정관 스님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체험에서 감말랭이 고추장무침 조리법을 배우는 참가자들.


마지막 선택에서 맺어진 7쌍의 커플은 이른 아침 백양사 경내를 함께 산책했다.


사진 콘테스트에서 베스트포토상을 받은 '유한 커플'이 사진의 포즈를 재현하고 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커플 7쌍 모두에게 '현커(현실커플) 기원 금일봉'을 전달했다.

편백나무의 좋은 기운을 함께 느껴보세요!

- 혈액순환개선, 피로회복, 면연력강화
- 근육통와환, 세포활성화, 퇴행성협착증개선
- 교통사고후유증, 디스크치료에 도움

스님 건강, 편백나무로 지킨다

히노끼(편백)나무의 효능

이노 끼(편백)나무 열매가 있. 줄기, 뿌리중에서도 피톤치드 향이 가장 많고
열매를 구애 잘 건조시킨 후 집안 곳곳에 방양제모 사용 가능하며 아로마 테라피로 스트레스 완화.
피부질환 개선, 달서,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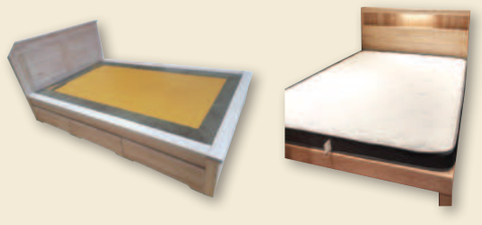
히노끼(편백)나무는 항균효과가 뛰어나(곁에 두는 것만으로도) 세균번식에 가장 취약한
목욕당의 욕조로 사용하면 좋고 인테리어 용품, 주거용 목재, 색상, 침대, 쌀통, 발판, 장난감,
그리고 메계같은 경우는 특유의 향으로 인해 정신을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

삼림욕을 하면 심신이 안정되는데 그것은 숲에서 나오는 피톤치드 때문이다.
일반 나무보다 5.5배 가량 많아 편백나무 숲에는 모기가 없다고 할 정도이며,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는 나무가 바로 편백나무로서 항균, 탈취, 공기정화의 효능이 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편백 숯침대
100% 참숯



편백침대



편백서랍장



편백찜기



FINE TERRA



규조토 비누 'FINE TERRA'
절찬 판매
판촉용 대량구매시 70% 할인
향긋함과 함께~ 기다려지는 세안~~~
알파토 규조토 soap 민감성 피부에 도움

그 린 에 너 지
GREEN ENERGY COMPANY
제품문의 031-5 4 2-2735 010-3576-6802
계 좌 : 농협 1186-02-058581
예금주 : 그린에너지(이도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 319-16 (무봉로 15)
전제품 국내산

마하사 나한전 탱화서 사리 발견

영산회상도 복원 불사 과정서 사리 8과 나와

11월 6일, 나한전서 재봉안 법회
천년고찰서 발견 유물 가치 조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 나한전 영산회상도 탱화 복장 유물 가운데 사리가 발견돼 관심을 끌고 있다.

마하사는 11월 6일 나한전에서 '영산회상도 복원 재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나한재일에 맞춰 봉행된 이번 법회는 나한전 영산회상도의 가치와 더불어 함께 발견된 복장 유물 및 사리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특히 마하사는 부산 최초 사찰로 중요도가 높으며, 나한전은 동짓날 불씨를 구해준 나한과 동지 팥죽 설화로 유명해 나한 기도도량으로 부산 시민의 안식처가 되고 있다.

법회는 이운식에 이어 봉안 및 예불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불자들은 나한전을 가득 메웠으며 나한의 가르침을 받아 더욱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마하사 주지 정산 스님은 "옛날부터 마하사 나한님은 친숙한 이미지로 불자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즐거움을 주셨는데, 복장 유물에서 사리를 발견해 놀랍기도 하고 선물을 받은 듯 기쁘다"며 "매일마다 나한 기도를 하며 이곳을 찾는 불자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셨다. 오늘 다시 이운 봉안해 여법하게 알릴 수 있어 환희롭다"고 설명했다.

나한전 영산회상도 사리는 지난 1월 16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된 복장 유물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발견됐다. 나한전 영산회상도는 안료층 박리와 박락으로 손상된 상태로 보전처리가 필요했고 복장유물을 살펴본 결과 복장시기 등을 알 수 있는 발원문과 오색실이 발견됐다. 마하사는 복장유물 가운데 후령통 내부에 종이로 만든 상자 안에 사리8과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마하사는 11월 6일 나한전에서 '영산회상도 복원 재봉안 법회'를 봉행했다.

마하사 나한전 영산회상도는 1910년 공화불사(空花佛事)를 기념하며 조성됐다. 영산회상도는 현재 부산광역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있다.

55돌 삼광사 신도회 "불국토 건설 기도 정진" 다짐

11월 1일 지관전서 기념법회 봉행
사찰 발전 공로자에 공로패 수여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삼광사는 기념법회를 통해 천태도량을 설립한 상월원각 대조사의 뜻을 기리고 청정 불국토를 향한 염원을 담아 애국불교와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가 11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55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대종사,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회장 정오 스님, 상임부회장 진광 정사를 비롯해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 주요 내빈이 동참했다.

기념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 봉독(춘광 스님) △국운융창기원 △연혁보고 △공로패 수여 △자비의 쌀 전달 △봉행사 △법어 △축사 △축가(화엄합창단) △발원문 △사홍서원 등으로 진행됐으며, 주지 영제 스님은 사찰 발전에 기여한 불자 18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천태종 원로원장 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상월원각 대조사님의 장엄한 원력이 나투어 오늘의 삼광사가 있으며, 대조사전을 비롯한 모든 불사도 원만하게 마무리해 대도량의 위용을 갖추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활기찬 신행운동으로 장엄해 부산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에 정토의 서광을 비추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은 "천태 불자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이룬 삼광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다시 대조사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서원을 이어 나아가자"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 창립 55주년을 맞아 천태묘법의 원력을 새롭게 하고 새 불교운동의 중심 사상인 3대 지표와 3대 강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개인의 완성은 물론 가정과 사회, 국가를 변화시키고 국운 융창과 인류 평화, 불국토 건설을 위해 기도 정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삼광사 신도회는 1969년 10월 15일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시작됐다. 상월원각 대조사는 "부산에 천태일승묘법의 사상이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니 1만여 명 이상의 불자가 동시에 법회를 볼 수 있는 대규모 불교회관을 크게 건립해야 한다"고 부촉했고 불사를 위한 준비를 착수했다.

1986년에 대충 스님의 증명으로 부산 초읍동에 사찰을 조성하고 삼광사로 명명했으며, 같은 해 10월 16일 천태종 부산지부를 광명사에서 삼광사로 이전해 종무 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회관 '지관전'과 국태민안 기원 대범종각을 완성했다. 1997년 4월 19일 미얀마, 스리랑카, 티베트의 불사리를 봉안한 오십삼존불팔연구층대보탑을 낙성했으며, 지장전, 극락전, 일주문 등 불사를 시작해 낙성했다. 이후 2023년 3월 10일 상월원각 대조사의 가르침을 새긴 대조사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보현장학회, 미래 육성 위한 장학금 전달

10월 31일, 삼랑진중학교서
다문화가정까지 장학금 확대



재단법인 보현장학회(이사장 정여스님)가 10월 31일 삼랑진중학교에서 '2024년 재단법인 보현장학회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사진〉

(재)보현장학회는 벽파 스님의 유지를 이어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보현장학회는 이날 삼랑진고등학교 학생 20명에게 각 50만원, 삼랑진 중학생 10명에게 각 30만원 총 1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보현장학회 이사장 정여 대종사는 "무엇보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꿈꾸는 미래의 모습으로 성장하기 위해 이 장학금이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금 학생이라는 본분에 따라 공부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스스로를 갈고 닦는 시간으로 성실하게 순간순간을 살면 미래의 꿈이 이뤄져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봉녕사, 붓다볼 명상지도사 첫 배출

11월 1일~3일, 2급 과정 워크숍
싱잉볼 활용한 힐링 붓다볼 명상



수원 봉녕사(주지 진상 스님)가 붓다볼 명상지도사를 배출했다.

봉녕사는 11월 1일~3일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과정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진〉

붓다볼(싱잉볼)은 불교명상을 위한 전법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봉녕사는 지난 8월 부산 싱잉볼 치유의소리와 불교명상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붓다볼 명상지도사는 봉녕사서 배출한 첫 결실로 의미가 깊다.

붓다볼 명상지도사 2급 워크숍에는 봉녕사 승가대학 3, 4학년 율원 스님들이 동참해 수료했다. 봉녕사 율주 적연 스님과 포교국장 능윤 스님, 학감 도연 스님, 교수 선정 스님, 교무국장 여요 스님과 여여 스님은 1급 붓다볼 명상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장안중 합창단, 청소년합창제 대상 쾌거

11월 3일, 'Bella Voce'팀
'두껍아 문지기'로 금빛 하모니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11월 3일 부산 금정구청 대강당에서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대상은 'Bella Voce' 장안중 합창단이 수상했다. 'Bella Voce'는 이번 무대에서 '두껍아 문지기'와 '시간에 기대어' 등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손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대상 수상학교는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부상으로 받았다.

금상은 선화여자중 선화합창단(부산광역시장상, 상금 400만원)이 수상했으며, 은상은 서면중 더블에스(SS)(동국대 총장상, 상금 300만원)가 수상했다.

동상은 송도중 꿈나무 합창단, 금정중 금정소년합창단(부산광역시 교육감상, 200만원)이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1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올해 수상작 (2024년)



한국 불교서사의 세계
김승호/소명출판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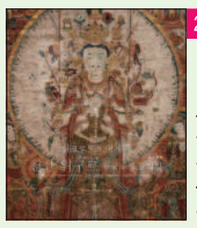
2023년 (20회)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02-578-1708 강남점 (도곡동 467-24)
010-7384-1708 김영숙 대표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대흥사 호국대전 완공…호국본찰 위용 일신

11월 2일 호국대전 완공법회 봉행
총412평, 단일 전각으로 국내 최대
진우 스님, 유인촌 장관 참석 축하
"호국불교 기억하는 성지로 가꾸자"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는 서산 대사 탄신 504주년을 맞아 11월 2일 경내에서 호국대전 완공법회를 봉행했다.

서산 대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호국불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호국대전이 완성됐다.

조계종 제22교구본사 대흥사(주지 법상 스님)는 서산 대사 탄신 504주년을 맞아 11월 2일 경내에서 호국대전 완공법회와 이를 기념하는 문화대축제를 봉행했다.

이날 완공된 호국대전은 단일 전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총 412평(기단기준 1,363㎡)에 이른다. 정면 9칸, 측면 5칸의 전통양식 목조건물이다. 대흥사는 호국대전 건립으로 서산 대사의 의발이 전해진 이후 호국 본찰의 그 위용과 상징적 의미가 완성됐다.

호국대전 완성과 함께 열린 문화대축제에는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를 비롯해 원로의원과 총무원장 진우 스님,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 대흥사 본·말사와 지역 사암스님과 불자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외빈으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응천 국가유산청 청장, 박지원, 민병덕, 정청래, 임오경, 박지혜 국회의원과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 명현관 해남군 군수 등 정·관계 주요 인사 등도 참여했다.

주지 법상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대륙의 입구이고 한반도의 시작인 이곳 땅끝 해남에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호국대전이 건립된 것은 나라를 지키는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한 국민 대화합의 상징을 세우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호국 호민 호법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과 추모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몫이다. 호국대전은 이러한 모든 국가영웅들을 기억하고 또 추모하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며 "조계종과 대흥사는 호국대전이 서산 대사와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한국불교의 호국 호법 호민의지를 온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 교육하고 소통하는 성지로 가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청허당 휴정 대선사께서는 위대한 선승이셨으며, 나라와 백성을 전란으로부터 구한 구국애민의 자비보살이셨다"며 "위대한 호국호법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호국대전을 건립해서 장엄하게 완공하고 문화대축제를 봉행하니, 이는 선사에 대한 지극한 공경심이 이루어 낸 일이며, 길이 계승하고 선양해야 할 모범을 보임이다"라고 치하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도 "국난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우리 불교의 호국사상을 후대에 전하는 역사교육의 장인 호국대전 건립을 축하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종정 법어에 이어 호국대전 완공 문화축제에 참가한 주요인사들은 마하선주선 선생이 쓴 호국대전 현판을 제막했다.

기념식에 앞서 표충사에서 열린 서산대사 504주년 예제관 행렬 및 추계제향은 초헌관 이성옥 해남군의장, 아헌관 김성일 전남도의원, 종헌관 안형주 해남경찰서장이 맡았다.

한편, 대흥사는 11월 2일~3일 양일간 보현전에서 호국대전 완공을 기념해 '호국정신의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국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호국영령 이고득락을 기원합니다"

통영사암聯 강구안 문화마당서
갑진년 무차평등 위령대재 봉행
해상 혼백 위로, 극락왕생 기원


통영불교사암연합회는 11월 2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해상무대에서 갑진년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과 맞서 싸우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전사한 순국선열과 1974년 통영 예인정 침몰사고로 희생된 해군과 해경, 해상사고로 숨진 어민들의 넋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가 봉행됐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는 11월 2일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 해상무대에서 갑진년 무차평등 합동 수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1부 법요식과 2부 수륙위령대재, 3부 해상소전, 4부 무차평등 만발공양으로 진행된 이날 수륙대재에 통영불교사암연합회회장 묵원 스님, 고성연합회장 수운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 용화사 진응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해인정사 자원 스님, 도솔암 정왜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백운사 석봉 스님, 법성사 만우 스님, 왕복사 자우 스님, 금왕사 금산 스님, 대성암 범서 스님 등 지역스님들과 천영기 통영시장, 배도수 통영시의회의장, 정점식 국회의원, 안휘성 통영거사림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모였다.

1부 법요식에서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묵원 스님은 고불문을 통해 "순국선열 애국열사님들과 선열들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는 어떤 수난에도 꺾이지 않는 민족의식과 자존감을 세워주었고 대한민국 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호국영령들과 군경 장병 영령, 선망 영가님들의 이고득락을 기원하며 이 땅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신명을 다 바쳐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시민기원문을 통해 "통영바다는 한산해전 호국영령과 순직 해군·해경 영령, 조업 중 돌아가신 어업인들이 유명을 달리한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바다"라며 "수륙위령대재를 통해 영령들의 보살핌으로 통영바다의 안전과 풍요, 시민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무차평등수륙대재 증명법사 용화사 진응 스님은 영가법문을 통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허공에 조각구름이 일어나는 것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음이라 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것 생사거래(生死去來)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라며 "유주무주 영령들이 남긴 삶의 의지를 본받아 착실한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들의 생업을 스스로 가꾸어 나갈 수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교전통의식으로 진행된 수륙재에는 백운사 석봉 스님을 비롯한 아랫녘수륙보존회 스님들이 참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교 '탁발', 전통시장서 펼쳐지다

11월 2일, 광주 양동시장서
"탁발은 수행 · 중생구제 방편"



불교의 '탁발'은 수행자의 기본덕목인 하심(下心)을 깨우치는 수행의 방편 중 하나다. 광주의 불자들이 탁발을 소재로 한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사)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소운 스님)는 11월 2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제5회 전통 탁발 재현 문화행사'를 개최했다.〈사진〉

'202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의 일환인 이번 탁발 행사는 탁발을 통한 수익금을 지역 청소년의 장학금으로 기부하고자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사)날마다좋은날과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공동주최하고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 백양사 신도회, 전통탁발보존회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나주 녹야원 효공·소운스님을 비롯한 지역사찰 주지스님과 양동시장 상인회, 광주전남포교사단과 운전불자회원, 불교종립학교 정광고에서 참여했다.

기념식으로 시작된 탁발은 1km 남짓한 양동시장을 가로지르며 진행됐다. 조선대 풍물패를 선두로 정광고 학생들의 만장기, 동자승, 탁발스님, 포교사단, 운전불자회 등 150여 명이 줄을 서서 이어갔다.

행사에 앞서 소운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탁발은 불교 전통의식으로 스님들의 수행의식이자 중생구제의 방편"이라며 "탁발의 정신을 담은 행사의 수익금은 모두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마음 쉬는 토요일' 프로그램 성료

산사문화유산활용사업 일환
年13회, 1000여 명 동참해



김제 금산사(주지 화평 스님)가 11월 2일 가족 화합을 위한 '마음 쉬는 토요일' 체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며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을 회향했다.〈사진〉

2024년 5월부터 진행된 프로그램은 13회에 걸쳐 1000여 명이 참가했다. △미륵전 공포조립체험 △오유지족 다식다도 체험 △대장전 소슬금강저 염색체험 △모악산 사진관 △어린이국악교실 △룰렛게임 등의 체험행사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 △모악산 인문학교실 등을 운영해왔다.

올해 7년 차를 맞은 금산사 프로그램은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 단위 참가자가 느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도 증가 추세를 보인다.

가족과 함께 세종에서 온 이민희 씨는 "온 가족이 함께 하루 종일 사찰에 머물며 우리 전통문화유산에 대해 재밌고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금산사는 우리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닌 가족과 함께 체험해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천년고찰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통산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사업'은 산사가 보유한 문화유산을 활용해 특색 있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하는 사업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붓다라마사, '가사공양 법회' 봉행



천안 붓다라마사(주지 찌라싹 스님)가 11월 3일 경내에서 '카티나' 법회를 진행했다.〈사진〉 카티나 법회는 태국,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 봉행하는 의식으로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음식과 가사를 공양하는 법회다.

법회에는 광명 금강정사 주지 가섭 스님, 마하위하라 왕기스 스님, 서울 네팔법당 라마쿤상 스님, 베트남 원오사 주지 띡동탄 스님을 비롯해 풍찻판시 태국대사관 무관 등 전국에서 찾아온 태국불자와 한국불자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주지 찌라싹 스님은 "붓다라마사 건립을 위해 한국에 온 태국인들이 하나가 되어 노력했다. 이 사찰은 모두를 위한 공동체 시설"이라고 인사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개관 17주년 축제

10월 31일, 복지관 앞마당서



조계종 제24교구본시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 스님) 산하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관장 해봉 스님)은 10월 31일 복지관 앞마당에서 '제17회 개관기념 복운축제'를 열었다.〈사진〉

축제는 선운사복지재단 대표이사 경우 스님, 심덕섭 고창군수, 어르신 및 지역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창군종합노인복지관 관장 해봉 스님은 "개관기념 복운축제를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인생이 되시길 발원한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내소사, 문화체험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지역민, 관광객 참여 · 소통의 장



부안의 천년고찰 내소사(주지 진성 스님)가 11월 2일 가을로 물든 능가산과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2024 내소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내소사 산사음악회와 여러 체험활동을 통해 내소사 문화유산에 빠져들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성 스님은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각원사, 불교대학 총동문 체육대회

11월 2일 태조산 수련관서



천안 각원사(주지 대원 스님)는 11월 2일 태조산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에서 '불교대학 졸업생 총동문 체육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체육대회는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7년 만에 동문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원 스님은 "우리가 한마음으로 같이 뛴다는 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라며 "불교대학 동문 여러분들의 힘을 만들어 내는 자리이니,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덕원사, 창건 26주년 개산대재

11월 3일, 경내 특별법단서



울산 덕원사(주지 덕원 스님)는 11월 3일 경내에 마련된 특별법단에서 창건 26주년 개산대재를 봉행했다.〈사진〉

덕원사 주지 덕원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정진과 전법의 도량으로 가꾸고자 한다"며 "보현행으로 불국토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광주 증심사, 오백나한대재 봉행

11월 4일 경내 오백전서



무등산 증심사(주지 중현 스님)는 11월 4일 경내 오백전에서 '갑신년 오백나한대재'를 봉행했다.〈사진〉 오백나한대재는 오백전에 봉안된 석가모니불, 10대 제자, 16성중, 오백나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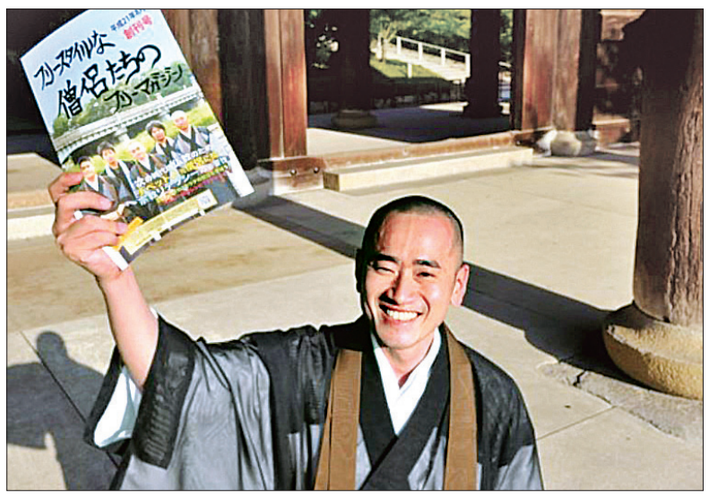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선재사 주지 진훤 스님과 대중스님들의 오백대재 기도로 진행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日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스님들' 15주년

종단 초월 청년스님들 제작 참여
사회문제 해결 참여 스님들 소개
사찰요리 레시피, 해외불교 안내도
"사회문제 · 청년에 초점 맞추겠다"

박영빈 객원기자


15년전 창간호를 들어 보이는 초대 편집장 류호 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종단을 초월한 젊은 스님들이 만드는 일본의 무료 불교잡지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이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최근 편집장 스님이 교체되는 등 꾸준히 이어지는 이 잡지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11월 3일 특별 보도했다.

10월 초, 교토 시의 정토종 사찰 류간지(龍岸寺)에서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의 역대 대표와 편집장 스님들이 한 데 모인 대담이 개최됐다. 초대 대표이자 편집장이었던 이케구치 류호 스님이 주지인 사찰로 의미가 컸다. 창간 15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구독자와 불교에 관심있는 시민 등 50여 명이 모였다.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은 2009년 8월 창간한 잡지로 일본 전국의 회원 사찰과 연대한 카페 등에 무료 배포 중이다. 처음에는 격월 발간했으나 현재는 연 2회 발간 중이다. 초대 편집장 류호 스님은 "창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타 종단 간 스님들의 모임이나 교류가 금기시 됐는데, 인터넷 보급이 본격화되며 스님들의 교류가 시작됐다"며 "젊은 스님들이 '우리가 좋아하고 지키고자 하는 것을 우리 세대에 전해야한다'고 원력을 세워 잡지라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창간 초기의 상황에 대해 회고했다.

〈프리-스타일한 스님들〉은 창간부터 교계는 물론 사회에서도 쉽게 다루기 어려운 자살, 빈곤 등의 문제를 다루며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젊은 스님들을 소개했다. 또한 사찰요리 레시피, 해외불교 동향 등을 전하며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참신함으로 불교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킨 잡지는 곧 발행부수 1만 부를 초과 달성했다.

잡지 제작에 참여하는 스님들은 "젊은 세대에게 불교를 전하기 위해 시작된 잡지인만큼 체제 변화는 필요하다"면서 뜻을 모아 주기적으로 편집장 스님을 교체했다. 2020년 12월호부터 편집장 소임을 맡은 즈이키 스님은 출가 전 광고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잡지의 이미지 쇄신을 꾀했다. 일상대화에서 불교 요소를 찾는 '그 말은 원래 부처님 말씀 중에 있다'는 주제의 코너를 만들거나, SNS 등에서 '○○는 지옥' '헬○○'과 같은 지옥에 빗대어 회자되는 유행어를 통해 현대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지옥에 대해 고찰하는 특집을 내기도 했다.

2024년 6월에 발행된 63호를 계기로 대표 겸 편집장에 취임한 하타 쇼켄 스님은 "우선은 잡지 로고부터 바꿔볼까 한다"고 웃어 보이면서 "사회문제와 젊은 세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잡지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日, AI 상담봇 '승려문답' 개발 '화제'

메신저 '라인(LINE)'서 활용 가능
"젊은 세대 불교 유입 계기 기대"



불교계 대화형 AI '승려문답'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출처=하스노하 공식 홈페이지

지난 2022년 서비스를 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를 시작으로 다양한 대화형 AI 서비스들이 등장했다. 이에 맞춰 불교계에서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개발·보급 중인 가운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가능한 불교계 대화형 AI 서비스가 등장해 화제다. 지난 11월 3일 일본의 'JB프레스'는 AI스님에게 고민상담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불교계의 대화형 AI 사례는 몇 차례 존재했다. 2021년 교토대에서 개발한 '붓다봇'은 현대인의 고민과 사회문제에 관해 불교적 해답을 주는 AI로 초기경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2022년에는 경전과 불교학자, 경영인들의 지식을 도입한 '불교철학 컨설팅 서비스'도 등장했다. 해당 AI는 회사원과 경영자들의 고민에 대해 불교 가르침에 따른 해답을 제시해준다. 두 사례에 이어 2023년 11월, 메신저 어플에서 언제나 사용 가능한 AI 서비스 '승려문답'이 개발돼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일본의 불교계 고민상담 사이트인 '하스노하(ハスノハ)'가 개발한 AI, '승려문답'은 일본의 주류 메신저 어플 라인(LINE)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사용자가 원하는 대답 형태에 따라 '선생님 같은 스님' '친절한 스님' '전직 일진 스님' 등 상담할 AI스님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세한 설명이나 일상의 대화, 상식에 관한 대답을 바랄 경우 선생님 같은 스님을, 좀 더 경전이나 불교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친절한 스님을, 강한 어조로 혼내주길 원하거나 마음을 다잡아주길 원한다면 전직 일진 스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스노하 측은 "본 사이트는 10년 넘게 실제 스님과 네티즌을 연결해 고민 상담을 진행했는데 상담에 응하는 스님들만 일본 전국에서 300명이 넘는다"며 "최근 이용자가 증가해서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나 고민은 AI스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AI스님이 젊은 세대를 불교와 사찰에 이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일본종교계 저널리스트로 활약 중인 우카이 슈토쿠 스님은 "앞으로 이러한 대화형 AI는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실제 AI스님들의 답변은 일반적으로 스님들이 해줄 수 있는 답변에 충분히 필적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러한 AI스님들의 활약이 늘어간다면 자질이 부족한 스님들이 밀려나거나, 미래에는 AI가 종교인을 대신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 대통령 "세계평화 위해 佛法 논의를"

11월 6일, 아시아불교정상회의서
"증오에서 자유로운 평화 필요"


아시아불교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 중인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사진출처=비즈니스 스탠다드

인도의 드라우파디 무르무(Draupadi Murmu) 대통령이 전 세계의 여러 분쟁과 기후 변화 등 위기에서 불교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드라우파디 대통령은 11월 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불교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불법(佛法)은 평화와 비폭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있어 다르마(종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날 여러 분쟁의 씨앗이 되는 '협소한 종파주의'와 관련해 "우리는 부처님의 다르마가 아시아와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며 "부처님에 따르면 탐욕과 증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으로,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탐욕과 증오로부터 자유로운 평화를 추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기 위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인도 정부가 팔리어와 프라크리트어에 고전언어 지위를 부여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가젠드라 싱 셰카와트 인도 연방 문화부 장관도 "중도와 부처님의 사성제는 시대를 초월한 해결책을 제공한다"며 "오늘 이 정상회담은 불교 외교 관계를 육성할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위기 극복, 불교 국가 간 문화적 유대감 강화, 불교 관광 및 순례 촉진, 고대 불교 사본 및 유물 보존 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泰 승려 "美, 이스라엘 군사 지원 중단하라"

英 미국대사관 앞서 1인 시위
"고통 막기 위한 실천 필요"



1인 시위 중인 아잔 산타마노 스님의 모습. 사진출처= 아나돌루 통신

태국 스님이 미국을 향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1월 1일 '아나돌루 통신(Anadolu Ajansı)' 등 외신은 태국 출신의 아잔 산타마노(Ajahn Santamano) 스님이 영국 런던에 있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 중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아잔 산타마노 스님은 지난 1년 동안 영국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해오고 있다. 스님은 "미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의 근본적인 가해자이자 공모자"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특히 병원 폭격과 어린이 대량 학살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이 같은 시위에 나선 배경에 대해 "불교에서는 모든 유정에 대한 연민을 이야기한다"며 "실제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인간으로서 이를 막기 위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공격 이후 가자 지구에 공세를 퍼붓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자행한 잔혹한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집단학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정현 객원기자

"신은 듯, 안 신은 듯 맨발같은 신발"
어싱 접지 슈즈
2024 신상출시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접지) 효과
발볼 넓은 신발, 맨발 같은 신발
KSNS 적용 신발

어싱 슈즈는
발 볼이 좁거나 보통 넓이인 분들이
세련되고 날렵한 신발을
신고 싶을 때를 위하여
제작된 신발로 둘레길, 황토길,
캠핑용, 런닝용 신발로도 좋습니다.


베이지

어싱슈즈
특판가 (무료배송)
65,000원
※ 사은품 : 어싱 양말
NEW
베이지 블랙

어싱 트레킹화
특판가 65,000원 (무료배송)
※ 사은품 : 어싱 양말
※ 소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 네오프렌(잠수복 재질)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지광국사탑, 113년 만에 제 모습을 찾다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 광장서 복원 기념식

국보 '지광국사탑' 복원 완료
일제강점기 무단 반출돼 유랑
국립문화유산硏 5년 보존처리
지진 대비 안정성 확보 완료
내년 최종 복원 보고서 발간

정현선 기자 honsonang@kakao.com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후 오랜 세월을 떠돌아야 했던 비운의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고향인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사지에서 제 모습으로 복원됐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원주시는 11월 12일,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앞 광장에서 복원 기념식을 열고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제자리와 제 모습를 찾은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기념식은 식전 공연인 창작음악극으로 시작해 제막식과 지역민이 함께할 수 있는 부대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고려시대 고승 지광 국사 해린(984~1070)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지광국사탑은 화려한 조각과 장엄한 장식으로 고려시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으로 평가된다.

법천사지에 있던 지광국사탑은 일제강점기인 1911년 처음 반출된 뒤 1975㎞에 달하는 길고 긴 유랑생활을 시작했다. 일제강점기인 1911년 일본인 와다 쓰네이치가 탑을 매입했고 서울 명동에 위치한 개인병원에 조경용으로 전시했다. 이후 오사카의 한 귀족에게 팔아 불법으로 반출시켰고 탑은 자신의 가문 묘지 정원에 장식품으로 사용했다. 이를 안 조선총독부의 반환 명령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본래 자리인 법천사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1915년 경복궁으로 옮겨져 조선물산공진회 장식재로 쓰이며 원래의 위치와 의미에서 멀어지게 됐다.

지광국사탑은 1951년 한국전쟁 중 포탄을 맞아 치명상을 입었다. 상륜부와 옥개석이 1만2000여 조각으로 부서진 것이다. 1957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故 임천 선생에 의해 복원이 이뤄졌고, 이후에도 해체와 이전을 반복하다가 국립고궁박물관 뒤뜰에 자리하게 됐다.

이후 지광국사탑은 2005년과 2010년 시행된 정기조사와 2014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2015년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에서 다수의 균열과 모르타르(mortar) 복원 부위 탈락 등이 확인됐다.

탑의 균열과 풍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백화와 흑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문화재청은 결국 2015년 해체와 보존처리를 결정했고, 2016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로 탑을 이송해 5년간의 정밀 복원 작업을 진행했다.

국가유산청은 지광국사탑을 전면 해체하고 보존처리에 착수했다. 복원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1957년 사용된 시멘트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원래의 석재로 복원하는 일이었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흑화와 박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이저 세척 기술과 전통 접합 방식을 적용하고, 결실된 부재는 산지를 분석해 당시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돌로 대체했다. 1957년 복원 당시 잘못 맞춘 옥개석과 추녀 위치도 바로잡았다. 지진 진도7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면진대를 설치해 탑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중과 진동을 분산시키는 구조도 마련했다.

복원 과정은 과학적 보존과 전통 기술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여러 전문가의 공동연구로 탑의 도상과 문양을 복원하고 석재의 산지를 추정했으며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현재까지 복원 관련 보고서 4권을 발간하고 내년에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지광국사탑의 귀환은 해외로 반출된 석조 문화유산이 제자리로 돌아온 모범 사례로,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사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며 "지광국사탑 복원을 계기로 국가유산 보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50돌 한국불교연구원 기념 심포지엄 개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 주제로 한국불교 미래 방향 제시해

한국불교연구원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11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교의 미래, 불자의 길'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불교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민용 전 원장은 불교가 특정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대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발전해온 점을 강조했다.

양형진 고려대 명예교수는 불교와 과학이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불교의 연기론과 공사상에서 찾았다.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는 사성제를 현대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했다.

성태용 전 건국대 철학과 교수는 불교가 공동체적 기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자비와 공존을 역설했다.

정현선 기자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 12회 청송학술상 수상

11월 1일, 시상식 개최 화엄사상 연구로 주목

재단법인 청송장학회(회장 김종욱)가 주최하는 제12회 청송학술상의 수상자로 기무라 기요타카 일본 동경대 인도철학불교학과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기무라 기요타카 교수는 동아시아 불교 연구, 특히 화엄사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학자로 화엄사상과 불교사상의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해온 공로로 주목받았다.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무라 교수는 "불교 연구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선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석궤론과 수심요론' 탐구

11월 15일, 법련사 대웅보전서 제153차 정기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은 11월 15일 2시 법련사 대웅보전에서 제153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세친의 석궤론과 홍인의 수심요론'를 주제로 불교 사상과 수행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이길산 경남대 교수가 '세존의 거짓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유식이십론과 석궤론에 나타난 '인무아'의 개념을 고찰한다.

두 번째 발표는 강지언 서울대 교수가 진행한다. 강 교수는 '수심요론'에 나타난 홍인의 사상과 신심을 중심으로 한 수행 방식이 초기 중국 선종 사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명한다.

정현선 기자

고려시대 불교예술 정수 '금니사경과 나전경함'

9월 5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리움미술관서 만나는 고려 걸작
7권 전체 절첩본 '금니 묘법연화경' 정교의 극치 '나전국당초문 경함'



예술적 걸작으로 평가받는 두 유물이 리움미술관 '전 · 함: 깨달음을 담다'에서 선보이고 있다.

고려 시대 왕실의 신앙과 예술을 대표하는 두 걸작, '감지금니 묘법연화경'과 '나전국당초문 경함'이 리움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은 내년 2월 23일까지 5개월여 동안 M1관 2층에서 상설기획전 '전·함: 깨달음을 담다'을 열고 고려 불교 예술의 가치를 조명한다.

예로부터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경전은 발원자의 염원을 담아 가장 공덕 높은 예술로 여겼다. 이번 전시는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듯 글과 그림 모두를 순도 높은 금으로 이룬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7권 전체와 고려 시대 나전 공예의 정수인 '나전국당초문 경함' 만으로 전시를 꾸렸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금빛으로 빛나는 '감지금니 묘법연화경'이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려 충목왕 시절인 1345년, 진한국대부인 김 씨가 왕실의 안녕과 영혼의 구원을 기원하며 조성한 법화경 사경은 절첩본 형식으로 제작되어 접어서 보관하고 펼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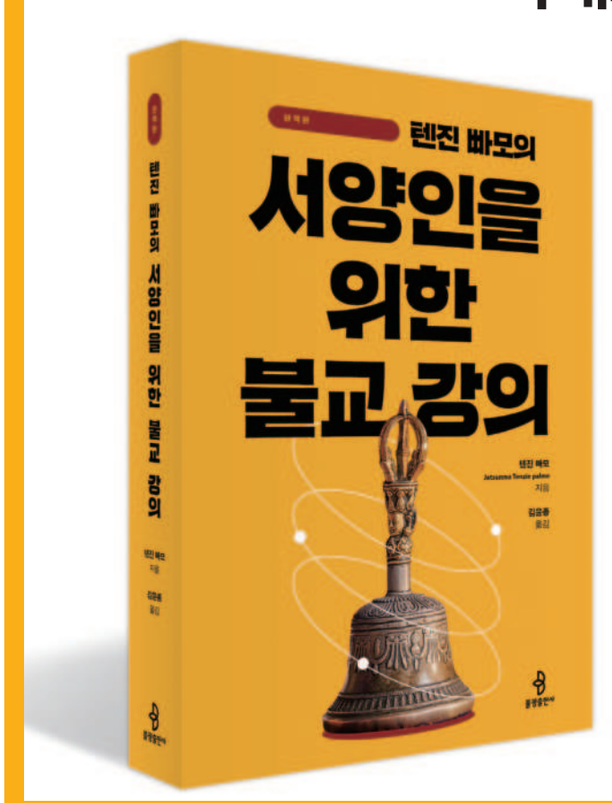
모든 글과 그림이 금으로 쓰여 있어 화려함이 압도적이며, 전체 7권이 모두 남아 있어 예술적 완성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각 권의 앞부분에는 경전 내용을 요약한 변상도가 그려져 있고 제7권의 말미에는 발원문이 있어 역사적 맥락을 더해준다. 고려 후기 최고위층 여성 재가 신도가 발원한 사경이란 점에서 당시 권력층의 깊은 신앙심과 그들이 쏟아부은 정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다.

함께 전시된 '나전국당초문 경함'은 압도적인 정교함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수만 개의 나전 조각이 얇은 철선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꽃문양을 이루고 있다. 표면은 반복된 옻칠 작업을 통해 요철 없이 매끄럽게 유지되고 있다. 당시 고려 시대 장인들이 나무라는 재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경함을 완성한 것은 고려 공예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 세계적으로 20여 점만 남아 있는 나전 경함은 보관함을 넘어 예술품으로서의 면모를 자랑한다.

이광배 소장품연구실 수석큐레이터는 "전시회는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고려인들이 품었던 신앙심과 예술적 열망을 직접 느껴볼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현선 기자

2023년 BBC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 중 유일한 종교인,
티베트불교의 '역사'가 된 영국 출신 비구니 텐진 빠모!



"난 합리적이야!" "난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나야!"라고 말하는 서양인들에게
…
그리고 21세기를 사는 한국인들에게

삶과 불교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가장 친절하고 감명 깊은 불교 입문서!

텐진 빠모의 서양인을 위한 불교 강의

텐진 빠모 지음 · 김윤종 옮김
472쪽 | 값 25,000원

텐진 빠모(Jetsunma Tenzin Palmo)
1943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열여덟 되던 해 처음 불교를 만났다. 2년 후 인도로 건너가서 스승 캄뚤 린뽀체를 만나 1964년 사미니계를 받았다. 1973년 비구니계를 받으며 '서양인 여성 최초 티베트불교 비구니'라는 호칭을 얻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12년 동안 히말라야의 외떨어진 동굴에서 집중 수행에 들어갔다. 마지막 3년은 아예 외출조차 삼가고 폐문 수행을 했다. 1988년부터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을 순회하며 서양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으며, 이 순회 법회는 2022년 마무리했다. 지금은 히말라야의 동규가찰링(Dongyu Gatsal Ling) 사원에서 120여 명의 비구니와 함께 수행하며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2023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감을 주는 여성 100인'에 종교인으로서는 유일하게 텐진 빠모를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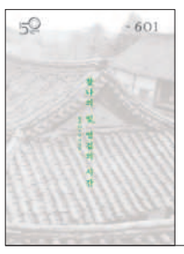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6~11/12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봄날에다시만나면:나는죽음을돌보는수행자입니다	능행	김영사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2	부처님의삶과가르침(1)	비구 범일	여시아독	7	네가지마음챙기는공부*대념처경과그주석서(초기불전001)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3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시리즈1)육체의한계를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온계시초:출가이전소년시절의성파스님이지은한시모음	조봉주(성파스님)	통도
4	보리도차제광론1(나란다불교학술원총서1)	쫑카파	도서출판나란다	9	언어진실을전달하는가왜곡하는가(밝은사람들총서18)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5	철학자와함께읽는동화*동화인문학	이일야	담앤북스	10	마음닦는법	김재웅 지음	용화

책세상

사진으로 돌아보는 '불광' 50년, 불교 50년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
불광 50주년 사진집
안장헌 · 구본창 외 지음
월간 불광 / 3만원



관조 스님 作, 범어사 대중공양. 1992년 11월호 내지.

불광미디어, 월간 〈불광〉 창간 50주년
사진집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 발간
관조 스님 등 11인 사진 358점 게재
불광 연혁으로 지나온 50년사도 정리
매 호마다 불교 우수함 담은 사진 실어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불광미디어(대표 류지호)가 월간 〈불광〉 창간 50주년을 맞아 '찰나의 빛, 영겁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창간 50주년 사진집(통권 601호)을 발간했다.

광덕 스님의 원력으로 1974년 11월 창간된 월간 〈불광〉에는 그동안 많은 글과 사진이 실렸다. 불교 역사에 큰 불사를 남긴 수많은 고승과 불자들의 밀도 있는 글과 당대의 불교를 기록한 사진들이다. 불광미디어는 월간 〈불광〉의 역사와 함께했던 사진작가 11명(관조 스님, 안장헌, 구본창, 강운구, 육명심, 한정식, 이갑철, 윤명숙, 하지권, 최배문, 유동영)의 사진으로 월간 〈불광〉 50년을 되돌아 봤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월간 〈불광〉은 매 호마다 소중한 불교의 시간을 사진으로 남겨 불교의 우수함을 알려왔기 때문이다.

사진집에는 월간 〈불광〉 창간호인 1974년 11월호부터 근래 출간된 2024년 9월호까지 책에 실렸던 사진 중에서 기록성이 높은 사진 위주로 선별한 358점과 표지 이미지 600점을 실었다. 사진 배치 또한 잡지에 실린 순서를 우선했으며, 몇몇 사진들은 편집 디자인을 고려해 적절히 배치했다. 선별된 각각의 사진들에는 당시의 캡션이나 글을 넣었고 바뀐 현재의 모습을 설명하는 글을 붙이기도 했다. 책 말미에는 '지나온 50년, 나아갈 100년 – 불광 연혁'을 함께 담았다.

책은 '1974~1988 걸음을 떼다' '1989~1994 눈을 뜨다' '1995~2004 부처님의 빛 불광을 담다' '2005~2011 산문을 넘다' '2012~2020 불광의 시간' '2021~2024 다시 산문에 들다' 여섯 단계의 시대로 나눠 구성했다.

관조 스님은 당시 일반인들은 쉽게 촬영할 수 없는 사진들을 선보여 많은 주목을 받았다. 스님들의 교육공간인 강원의 모습, 발우공양 모습, 행자 교육 및 수계식 장면 등은 오늘날 재현하기 힘든 장면들이다. 관조 스님 사진의 묘미는 필터나 인위적인 조명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단순함과 담백함에 있다.

안장헌 작가는 주로 자연과 성보를 촬영했다. 그는 렌즈와 필름 면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뷰카메라로 촬영해 피사체의 왜곡 없이 안정감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월간 〈불광〉 최초의 사진인 '상원사 동종 주악비천상'과 '석굴암 본존 및 보살상' '월정사 석조공양보살상' 등의 사진을 통해 옛 모습을 볼 수 있다.

윤명숙 작가는 〈불광〉 사진의 스펙트럼을 넓혔으며, 성철·광덕 스님 등의 다비 사진과 변형되기 전의 사찰풍경을 담은 사진은 귀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부터 하지권 작가가 참여한다. 필름의 시대가 저물고 디지털의 시대가 시작된다. 절집 구석구석을 담아내는 하지권 작가의 시선은 부처님 세상의 모든 것을 담으려는 듯 금강산과 인도·미얀마 등 해외불교로 향했다. 하지권 작가로 인해 '불광은 사진이지'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2012년, 월간 〈불광〉은 표지를 포함 모든 면을 컬러로 바꾸었다. 판형도 커졌으며, 디자인 역시 보다 전문화됐다. 디자인과 사진의 비중이 커졌고 이미지 활용 빈도가 높아졌다. 2016년은 국내의 내로라하는 사진작가들의 불교 소재 사진을 실은 해였다. 관조 스님·한정식·강운구·육명심·구본창·이갑철 작가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하지권 작가의 뒤를 이어 최배문 작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 어느 작가보다 광각렌즈를 과감하게 사용해 입체감과 현장성 높은 사진을 선보였다. 그런 과감한 시선과 적극성은 불교 무형문화 순례기획과 인물 촬영에서 빛을 발했다.

2021년부터 기획의 변화에 따라 사진도 달라진다. 전문성이 짙은 글의 어려움을 사진이 보완했다. 정보성이 중요한 본문 사진을 보완하기 위해 유동영 작가의 포토에세이가 전면 배치됐다. 현재까지 사진을 책임지고 있는 유동영 작가의 사진은 피사체 본연의 면모에 집중하기 위해 정면으로 맞서며 왜곡을 줄이고 있다. 불교성이 짙은 내용의 변화는 초기 필름 시대와 같은 카메라 형식을 모색한다.

이번 사진집에는 월간 〈불광〉이 걸어온 '50년'이 담겼으며, 그 50년에는 한국불교 1700년, 부처님의 2600년도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사진집에 실린 사진 한 장 한 장은 찰나의 시간에 만들어졌지만 그 찰나의 시간은 지나온 영겁의 인연과 앞으로 다가올 영겁의 시간을 함께 품고 있는 불가의 사진이다. 책에 실린 사진들은 어느 순간 역사가 되고 영겁의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롭게 다시 공부하는 보물같은 '반야심경'



보물 반야심경
전상억 지음
글빛향기 / 2만3천원

전직 불자 공무원이 반야심경 해설서를 출간했다. 〈보물 반야심경〉이다. 저자인 전상억 불자는 30여 년간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 근무했으며, 퇴직 후 2년여의 집필을 통해 해설서를 완성했다.

해설서는 〈반야심경〉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연기법, 십이연기, 사성제, 팔정도의 진리와 주요 불교 용어를 설명하고, 〈반야심경〉에 나오는 한자의 뜻과 깨달음의 명언들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다.

주요 해설 중 하나다. '관자재보살'의 경우, 대부분의 해설서에서는 반야심경 내용을 관자재보살의 수행담과 가르침으로 보아 '관자재보살'을 고유명사인 명호로서 주어로 해석해 '관자재보살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저자는 반야심경 내용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아 '관자재보살'을 술어 동사로 시작하는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기 안에 있는 보살을 보라" 또는 "자기 안에 보살이 있음을 보라"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이번 해설서에서는 기존 해설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해설을 볼 수 있다.

저자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닌 불자임에도 불교의 가장 기본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반야심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워 늦게나마 〈반야심경〉 공부를 시작했다. 그래서 저자 자신이 불교 초보자의 입장에서 〈반야심경〉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찾아 정리하고 사유하며 해설서를 쓰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제대로 알리는 데 미력이나마 일조하여 많은 분들이 진정으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되고, 세상을 살기 좋게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도서출판 운주사 •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25,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22,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22,000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김성구 외/22,000원
느낌, 축복인가 수렁인가 권석만 외/20,000원
번뇌, 끊어야 하나 보듬어야 하나 이필원 외/22,000원
의지, 자유로운가 속박되어 있는가 이필원 외/24,000원
본성, 개념인가 실재인가 이필원 외/25,000원
언어, 진실을 전달하는가 왜곡하는가 한상희 외/23,000원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학술연찬회
주제: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일시: 11월 16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삶을 지향한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책은 불교(초기, 대승, 선)와 서양철학, 심리학 등의 시각으로, 지혜에 대한 지혜로운 통찰을 담고 있다.

이필원 · 장진영 · 김호귀 · 이진우 · 권석만 집필
신국판양장/값 25,000원



YouTube 유튜브에서
"밝은사람들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지난 학술연찬회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철학의 눈으로 본 '왕오천축국전'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
윤병렬 지음
소명출판 / 1만9천원

문헌학 · 서지학 넘어선 새로운 연구
"혜초의 진면목 텍스트 밖에 있어"
기존 연구 바탕에 철학적 세계로
구법여행 속의 철학적 사유 조명
하이데거 통해 혜초 기행문 해석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그 경이로운 문장에서 '철학'을 읽는다.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은 혜초의 여행, 그리고 그가 남긴 〈왕오천축국전〉을 철학의 눈으로 바라본 책이다.

혜초는 열다섯 살이란 어린 나이에 신라를 떠나 당나라 광저우로 들어간 뒤 열아홉의 나이에 인도(오천축국)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아랍 및 페르시아 그리고 히말라야의 여러 나라들을 걸어서 다녀왔다. 그리고 그는 그 여행을 기록으로 남겼다. 〈왕오천축국전〉이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세계 4대 여행기 중 가장 오래된 〈왕오천축국전〉은 신라의 승려 혜초가 4년(723~727) 동안 인도를 비롯한 40여 개국 2만km를 도보로 여행하면서 경험한 것을 기록한 기행문이다. 1200년 동안 중국 돈황의 천불동에 있었는데, 1908년 프랑스 동양학자인 펠리오가 발견했다.

〈왕오천축국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원본에 대한 고증과 주석 및 번역작업, 나아가 혜초의 전기와 그가 여행한 나라들, 특히 8세기의 인도와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기행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번 책에서는 혜초의 여행기를 독해함에 있어 문헌학과 서지학의 차원을 넘어선다.

혜초의 기행문에는 그가 여행한 곳의 지리, 정치, 종교, 경제적 상황, 생활양식, 문화, 언어 등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있다. 더욱이 혜초 당대의 역사뿐만 아니라 동서양의 교역로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다. 말하자면 〈왕오천축국전〉은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정치·국제정세·지리적 상황, 사회·문화·종교·경제적 상황 등을 담고 있는 유일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기행문에는 인도뿐만 아랍과 페르시아의 사회적 정황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혜초는 승려의 관점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문명탐험가의 모습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결국 혜초는 8세기의 인도, 중앙아시아, 아랍, 페르시아,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부족들의 삶의 양식과 당대 세계의 다양한 정신을 탐험하고 기록한 한국인이었다. 이런 점에서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에서는 기존의 시각들과는 달리, '문명탐험가' 및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혜초를 이야기한다.



금동반가사유상.

저자는 "혜초를 읽으려면 텍스트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한다. 혜초의 진면목은 텍스트 밖에 있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동반된 피안 구법여행은 텍스트 밖에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 밖에서 인간의 한계와 시·공의 한계를 초월한 피안여행을 읽지 못한다면 결코 '혜초'를 읽지 못한다는 것이다.

책 〈혜초의 기행문과 철학〉은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소 낯선 영역, 즉 철학적 세계로 나아간다. 저자는 책에서 혜초의 깨달음을 향한 구법여행에 동반된 철학적 사유를 조명한다. 혜초에게서 온갖 고행을 기꺼이 감내하고 경계를 허물면서 쟁취하는 해탈과 자유가 개시되기에 저자는 책의 제목에 '철학'이란 용어를 붙였다.

〈왕오천축국전〉에는 혜초의 인생과 철학, 역사와 지리, 문화와 문학 등도 포함하고 있다. 그가 감행했던 순례여행은 깨달음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철학(사유와 인식과 존재론)과 결부된다는 것이 책의 핵심이다.

경계를 넘는 것을 철학적 용어로는 초월이며, 혜초는 이 초월을 여행을 통해 몸소 실천했다. 따라서 혜초의 여행은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면서 해탈의 자유와 기쁨을 구체적으로 펼쳐 보인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다. 이 해탈과 자유야말로 모든 고등종교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혜초가 이룩한 해탈은 그 어떤 정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온몸이 투입된 구법여행 내지 피안여행으로 성취한 것이다. 혜초의 여행은 단순한 답사여행이나 의례적인 순례여행이 아니라, 차안의 세계와 '신화적 작별'을 하고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목숨을 건 피안여행, 즉 철학적 초월을 위한 여행이었다. 저자는 혜초의 온 마음과 몸을 던진 순례여행 내지 구법여행이 자신이 철학에 온 마음을 다하는 삶의 여정과 많이 닮아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자신이 전공한 서양의 하이데거 철학을 통해서 혜초의 기행문을 철학적 지평 위에서 더욱 깊이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다. 책에서는 혜초의 구법여행과 기행문을 하이데거의 '현 사실성의 해석학'과 '존재사유'에 입각하여 재조명했다. 동양에서의 깨달음은 그것에 도달한 사람의 존재에 심층적 변화가 일어남을 전제한다. 여기서는 혜초의 한계를 초월한 경험과 하이데거의 존재경험의 친연성을 밝힌다. 이런 저자의 상호문화적 비교철학의 시도는 독보적이고 창발적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철학의 도구를 통해 혜초의 기행문에 담겨있는 철학의 다원적 보편성을 재발견한 독창적인 연구 성과물이다.

골동의 매력…슬기로운 골동생활



골동골동한 나날
박영빈 지음
문학수첩 / 1만7천원

자신을 '골동 덕후' '프로 골동러'라고 부르는 한 수집가가 골동품 수집기 〈골동골동한 나날〉을 출간했다. SNS에서 '연근들깨무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 중인 저자 박영빈은 책에서 골동품을 수집하게 된 이야기와 지금까지 모아온 골동품들, 그것들을 수집하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게 된 인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소개한다.

저자는 어느 날 후배와 동행한 모처의 골동품점에서 작은 불상 한 점을 보게 된다. 골동품점 사장은 별 것 아니라며 관심 가질 필요없다는 투로 말한다. 그래도 저자는 왠지 불상에 마음이 끌렸다. 구석진 선반에서 불상을 내려 가까이서 보니 불상의 모습은 처참했다. 불상 전체에는 정체불명의 금빛 도료가 지저분하게 칠해져 있었고, 상호에는 유성펜으로 보이는 것으로 눈과 눈썹을 그리고, 입술은 새빨간 색으로 흉하게 그려져 있었다. 골동품점 사장의 '석고불상'이라는 말에 실망한 저자 일행은 다른 곳의 고미술상으로 발길을 돌린다. 동행했던 후배는 두고 온 불상이 자꾸만 눈에 밟힌다. 결국 후배가 되돌아가 불상을 구입해 돌아온다. 저자는 불상의 더러운 칠들을 닦아내는 과정에서 불상이 색난 스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불상은 조선 후기 활동했던 색난 스님의 작품이었던 것이다. 저자는 깨끗해진 불상의 입가에서 '조선의 미소'를 보았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그 미소를 보면서 서로 오랫동안 기다린 만남 같았다고도 적고 있다. 이후 불상은 문화재수리기능공을 통해 제대로 된 보존 처리를 거쳤다고 한다.

저자는 책을 통해 골동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한다. △1장에서는 골동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즉 어떤 물건을 '골동'이라고 부르는지 그 정의와 범위를 짚어준다. △1장과 2장 사이의 '여기서 잠깐, 골동 정리 좀 하고 갑시다!'에서는 저자가 애정을 가지고 수집하는 유물들과 골동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골동을 수집하면서 겪은 일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고 자랑하고 싶은 몇몇 썰'(90쪽)을 풀어본다.

△3장에서는 골동으로 엮인 여러 인연과 골동을 곁에 두고 사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찻자리를 시작으로 함께 모여 조선 초기 의복을 재현하거나 진짜 대모로 거문고를 장식하는 등 전통공예와 옛 것에 대한 사랑으로 뭉친 사람들, 그리고 자주 찾고 종종 조언을 얻기도 하는 단골 골동가게 사장과의 인연담도 소개한다.

그 밖에도 골동을 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각각의 장단점,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법, 유물에 걸 맞는 수리 기법 등 골동 또는 골동 수집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도 소개한다. 박영빈의 '슬기로운 골동생활'이다.

박재완 기자

행복 위한 지혜, 과연 무엇인가?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
이필원 장진영
김호귀 이진우 권석만 집필
운주사 / 2만5천원

안팎으로 복잡다단해진 세상에서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간이면 누구나 생각하게 되는 문제이다. 그 '어떻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운주사의 밝은사람들 총서 19 〈지혜, 타고나는가 배워지는가〉는 그 지혜에 대한 탐구다. 초기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이필원 교수가 '지혜, 생각의 경계 너머'라는 제목의 글에서 논하고 있다. 그는 초기불교에서 지혜는 '생각을 통해서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대승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장진영 교무가 '대승의 지혜, 정지(正智)와 본지(本知)의 조화'에서 다루고 있다.

선불교 분야에서의 지혜는 김호귀 교수가 다룬다. '자성의 자각과 그 활용'에서 김 교수는 선문답에 있어 지혜의 역할이 무엇인지, 선지식이 납자의 깨달음을 인가하고 전법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밝힘으로써 선불교에서 지혜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서양철학 분야에서의 지혜는 이진우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지혜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뤄진다.

심리학 분야에서의 지혜는 권석만 교수가 '지혜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다. 그는 현대의 심리학이 지혜를 어떻게 실증적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며, 심리학에서 대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의 두 유형을 소개한다.

책은 인간이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지혜를 강조하고 지혜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불교를 비롯한 각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 지혜는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탐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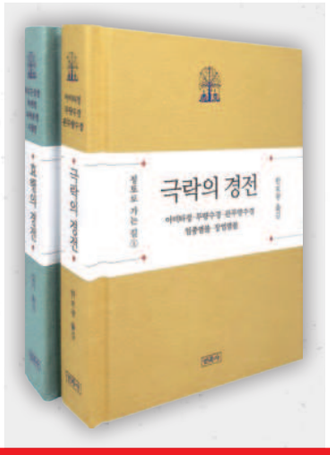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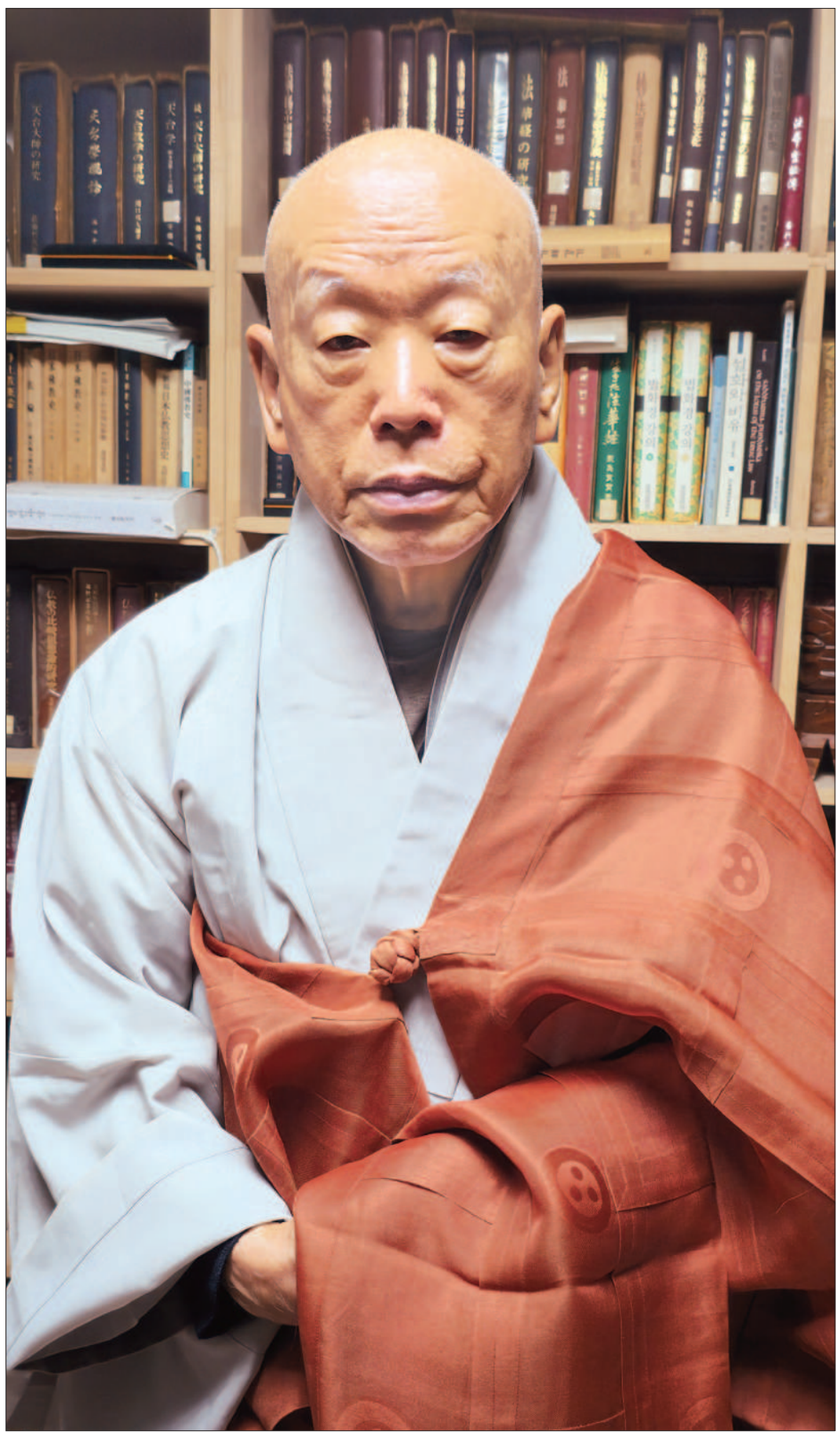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지상백고좌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대종사

“우린 본래 부처, 佛法대로 실천하면 성불”



현해 대종사는… 1958년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종비생 1기로 입학해 1968년에 졸업했으며, 1973년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박사과정에 입학한 뒤 초청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고마자와대 박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와세다대, 다이쇼대에서 동양철학과 천태학을 수학하고 귀국해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오랫동안 〈법화경〉을 강의했다. 1992년부터 2004년 1월까지 월정사 주지 소임을 맡았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조계종 제3 · 7 · 10대 종회의원을 지냈으며,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 및 대종사로 추대됐다. 현재 (재)불교문화진흥조계종 성찬회 이사장, 월정사 및 법종사 회주로서 월정사 서울포교원 법종사에서 대중을 만나고 있다.

가을빛이 완연하다. 가로수들이 오방색으로 단청을 한 듯 세상은 환하게 빛난다. 발밑에 뒹구는 낙엽 소리가 가을이 지나가는 소리로 들린다. 연암 현해 대종사는 2004년 1월에 월정사 주지 소임을 내려놓고 서울 도봉에 바랑을 내려놓았다. 북한산 주봉을 마주하고 선 법종사는 월정사 서울 포교원이다. 법종사는 5층으로 된 신식 건물이지만, 어쩐지 오대산의 바람 향기가 묻어나는 것 같다. 현해 스님의 주석처인 서울 법종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무릎이 아파 예전처럼 기도도 못하고, 붓글씨를 쓰면서 지내요. 왼쪽 귀는 거의 안 들리고 오른쪽 귀는 약간 들려요. 보청기를 끼면 세수할 때 빼야 되고 잠 잘 때도 빼야 되고, 끼었다 뺐다 하니까 귀찮아 가지고 사용을 안 해요. 이제 나이 들면 쓸데없는 거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이지.”

세납 90세이신 스님은 요즘 서예 공부로 소일하신다고 했다. 서예 공모전이 있으면 재미삼아 출품하기도 하신단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마가목 차를 내주셨다.

“옛날부터 늙은이가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허리가 안 아프다는 말이 있어요. 관절에 좋답니다. 법종사 정원에 마가목 몇 그루를 키워서 직접 만든 차입니다.”

현해 스님은 1958년 월정사에서 만화 희찬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0년 탄허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수행하시는데 버팀목이 되는 은사스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물었다. 이에 현해 스님은 내가 “우리 은사스님에게 배운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첫째는 어른을 모시는 데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사스님은 노스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부당한 명령 같아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불사하는데 내 개인의 사정이나 내 개인의 입장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사를 한다는 게 절대적이라 밥을 굶어가면서도 불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웠어요.”

오대산스님들의 수행전통이 유명한 이유를 여쭈었더니 “한암 스님은 상원사에서 모든 스님들에게 참선, 경, 의식, 염불, 가람수호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직접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오대산의 전통”이라고 했다.

“한암 스님은 아침 예불하고 나면 반드시 〈금강경〉을 독송해야 되고, 금강경 독송 후에는 1시간 기도해야 되고, 1시간 기도 후에는 참선을 했어요. 그때는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하루종일 참선을 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감자 농사를 직접 지었는데, 스님들도 이유 없이 똑같이 일을 했어요. 객스님들도 울력에 동원되었을 정도로 철저했지요.”

대중과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잠자고, 일도 같이 하는 것이 몸에 밴 한암 스님의 서릿발 같은 수행 정신이 오대산 가풍을 빛나

동국대 종비생 1기, 日초청 유학생 선발
박사학위 받고 귀국 ‘법화경’ 15년 강의
‘한마음 가운데 삼천세계가 있다’ 경구에
‘법화경’ 공부…“중생, 진실 이끄는 經”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 좋아해”
상불경보살, 자길 낮춰 남 존경하는 보살
누구나 존경받는 성품 갖춤을 의미
대승불교 ‘인간 존중’ 정신 담겨있어

게 하는 것 같다. 현해 스님은 1964년 동국대 불교학과에 종비생 1기로 입학해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 당시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여쭈었다. 그러자 현해 스님은 한 가지 일화를 소개했다.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반드시 스님의 안내로 절을 돌아보면서 사찰 역사와 불교 관련 설명을 직접 듣는 시간이 있었다. 안내할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주지였던 은사스님이 직접 안내를 진행했다. 그런데, 젊은 교장이 제일 뒤에 서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해 스님은 은사스님을 모독하는 것 같아 성질을 부렸다.

“교장선생과 거친 말이 오가면서 ‘불교도 현대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출가 전에 같은 교회에 다녔던 후배 하나가 서울에 먼저 와 있었는데, 동국대 종비생 모집을 알려주고, 원서도 내주고 하여 대학에 갔어요.”

현해 스님은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일본의 초청 유학생으로 선발돼 일본 고마자와대학에서 공부했다. 학비는 면제 받았지만,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기에 고생도 많이 했단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서 15년 동안 법화경 강의를 하셨다. 동국대에 입학해 불교대학 학장이었던 김동화 박사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화엄에서는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법화경〉에서는 일념삼천설(一念三千說), 즉 ‘한 마음 가운데 삼천의 세계가 있다’라는 가르침에 놀랐지요.”

현해 스님에 따르면 〈법화경〉 사상의 핵심은 ‘공즉유(空卽有)’이다. 일체의 존재는 자기라고 고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지만, 엄연한 현실은 우리들 눈앞에 전개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조계종 소의경전인 〈금강경〉을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지만, 한때는 〈법화경〉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경전 출판 역사를 보면 조선 500년 이후부터 정화를 거쳐 우리 종단이 정식으로 성립되기까지 한 50년 동안에 경전 출판은 〈법화경〉이 제일 많습니다. 출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은 독자가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금강경〉은 내용이 거의 공(空)사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空)을 설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스님들도 전부 다 다르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법화경〉은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만 해놓으면 누구든지 다 쉽게 읽을 수 있어요. 읽으면 뜻을 알게 되니 신도들에게는 오랫동안 〈법화경〉이 더 친근감이 있지요.”

〈법화경〉은 중생을 위해 방편을 열어 중생들이 진실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려는 경이다. 깨침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 보살, 성문, 연각의 중생에게 방편을 베풀어서 그 방편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이끌려는 것이다.

현해 스님은 1996년에 〈법화경요품강의〉를 출간했다. 2006년에는 산스크리트본, 한문번역본, 영문번역본, 한글번역본 등을 대조해가면서 연구하여 〈묘법연화경〉을 세 권으로 완간했다. 이 작업을 위해 자료 조사에 3년, 번역에만 7년이 걸렸다.

13면에 계속

대행 스님 법어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얕은 물도 깊은 물도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배가 되어라.”

마음의 길, 주인의 삶으로 이끄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

스님께서 30여 년에 걸쳐 설하신 방대한 법문을
근간으로 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의 책들이 나왔습니다.
생생한 육성 그대로 담아 낸 법문집들은 마음공부를 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길잡이이자 무한량의 자원이 되어 줍니다.
그러나 스님은 알음알음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경을 보되 누가 보는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목마를 때 스스로
물 한 컵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또 한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으며 그 말씀에 담긴 깊고 간곡한 뜻을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책을 펴내며〉 중에서

정가 18,000원 / 375쪽 / 출판사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백고좌

월정사 회주 연암 현해 대종사

“날마다 지극히 기도하라…열반에 이를지니”

12면에 이어

현해 스님께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대한 법문을 청했다. 스님은 ‘안수정등(岸樹井藤)’의 비유를 들려줬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미친 코끼리를 만났다. 어디 숨을 데가 있나 둘러보다가 우물을 발견했다. 급하니까 드리워진 등나무를 타고서 우물로 내려갔다. 내려가다가 아래를 보니 독사들이 우글거리는데 입을 벌리고 물려는 태세였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니까 미친 코끼리가 기다리고 있고, 내려가려는데 밑에서는 독사들이 있었다. 그때 우물 중간에 흰 쥐, 까만 쥐가 나와 가지고 등나무 줄기를 깎아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등나무 줄기가 끊어지면 죽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그 순간에 우물 벽에 벌꿀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꿀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그네는 그 달콤한 꿀맛에 취해 미친 코끼리에게 쫓기고 있음을, 우물 아래에서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도, 생명줄을 깎아 먹는 흰 쥐와 까만 쥐도 다 잊어버렸다. ‘안수정등’의 이야기를 마친 스님은 그 의미를 풀이했다.

“미친 코끼리는 세상 풍파를 말하는 것이고, 흰 쥐 까만 쥐는 낮과 밤을, 넝쿨은 우리의 생명을 뜻해요. 아래로 떨어지면 독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죽어서 지옥으로 갈지 천당으로 갈지 모름을 뜻해요. 꿀은 오욕을 뜻하는데 이런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오욕락에 취해 있어요. 풍파를 만나서 낮과 밤이 바뀌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인생살이 아닌가요.”

현해 스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가르침이 담겨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법문이다. 스님은 기도보다는 절 수행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스님께 절 수행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청했다.

“내가 승가대학에 있을 때 여름방학만 되면 남해 보리암에 갔어요. 주지스님의 상좌가 승가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가요. 기도 대신 절을 했어요.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 1배 하고, 또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르고 1배하고 이렇게 해서 108염주를 30번을 돌렸어요. 열이틀 동안 날마다 3240배씩 절을 하고서 보리암을 내려왔지요.”

이렇게 3년을 계속했는데, 어느 날 보니 무릎이 망가져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스님의 말씀에 몸과 마음을 조복 받는 수행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현해 대종사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스님은 〈법화경〉에 관련된 책을 비롯하여 여러 권의 저서가 있다. 그중에서 〈조계종사 연구논집〉은 한일불교유학생교류회 상임대표로 있던 현해 스님의 주도로 연구논문을 엮은 것이다. 조계종의 역사를 정화운동 이후로 보고 50~60년이라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해 스님은 조계종 종조를 신라의 ‘도의(道義) 선사’로 보았다. 중국으로 구법을 갔다가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치고 조사가 되어 귀국한 도의 선사를 종조로 내세운 것은 ‘종지 종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조계종에 몸담고 있는 출가자와 재가불자들의 수행과 신행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조계종단의 위상을 높인 것이다.

현해 스님은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보살’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상불경보살은 항상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는 보살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합장하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부처님이 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합니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상불경보살의 말에 화를 내면서 ‘거짓말쟁이, 나쁜 놈’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요. 상불경보살은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가면서도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은사스님 지극히 모시던 노부부 있었다

매일 아침저녁 ‘금강경’ 독송하던 처사

어느 날 독송 중 홀연히 세상을 떠나니

그의 마지막이야말로 해탈, 열반 아닌가

‘상불경보살’의 정신은 누구나 존경받을 수 있는 성품을 다 갖추고 있음을 뜻한다. 여기엔 ‘최상의 인간 존중’ 정신이 담겨있다. 끝없는 욕망으로 인해 돈과 탐욕과 권력을 쫓다보니 인간의 존엄성은 땅에 묻혀버린 상태다. 인간은 본래 부처인데 욕심 때문에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면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현해 스님은 불자들이 ‘장자궁자(長子窮子)’의 비유를 통해 ‘내가 바로 부처’임을 깨닫게 되면 좋겠다고 설한다.

장자는 요즈음의 재벌을, 궁자는 거지를 뜻한다. 장자가 어린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은 밥을 빌어먹는 거지가 되었다. 장자는 밥을 빌러 온 거지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거지는 완강히 거부하면서 도망갔다. 장자는 생각을 내어 거지를 자기 집에서 똥 치우는 궂은 일을 하는 하인으로 부렸다. 장자와 아들은 점차 친해졌고, 장자는 죽기 전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놓고 ‘저 하인은 본래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전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

“이 비유에서 장자는 부처님을 가리키며, 궁자는 중생을 뜻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지만 어쩌다보니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대승불교 사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보살사상을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스님은 장자가 아들에게 청소시키고 똥 치우게 하는 그 본래 목적은 ‘부처’임을 깨우쳐 주려는 것이라 한다. 지금 중생들이 기도하면서 ‘돈 벌게 해주십시오’하는 것은 장자의 아들이 ‘똥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기도해서 돈 벌면 뭐 해요?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이 해탈이지요. 부처님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대신에 복락을 주겠다는 원력으로 사시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우리도 해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님께 “일상에서 불자들이 어떤 신행생활을 하면 좋은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라고 여쭈니 “일반 신도가 해탈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줬다.

“월정사에 우리 은사스님을 지극히 모시던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 처사님이 은사스님을 알고부터는 꼭 아침에 일어나서 〈금강경〉 한 편 읽고 또 저녁 먹고 나서 자기 전에 〈금강경〉 한 편을 읽었어요. 독송할 때는 방에 홀로 앉아 했어요. 어느 날 마누라가 옆방에서 〈금강경〉 독경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가 끊어지기에 이상해서 문을 살짝 열어 보았어요. 처사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기에 ‘여보, 여보’ 하고 불러보니 이미 숨이 끊어져 있더래요. 이것이 해탈, 열반 아니에요? 얼마든지 일반 불자들도 해탈할 수 있는데 힘이 드니까 안할 뿐이지요.”

그러면서 현해 스님은 일상에서 날마다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기도를 해보라고 불자와 현대불교신문 독자들에게 권했다.

“나는 신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거든 세수부터 하고 반드시 밥 먹기 전에 염주를 돌려가면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시라. 그리고 저녁에도 자기 전에 반드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라’고 해요. 염불을 300번이든 500번이든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꼭 행하는 생활을 익히라고 합니다.”

현해 스님의 〈법화경〉 법문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내가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해탈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는 현해 스님의 가르침이 불자들의 가슴에 꽃 한 송이로 피어날 것이다.

문윤정 / 작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강법' 오행컬러패치 특판 할인가

국민대 스포츠건강재활 전공
심영세원 교수가 개발한 오행컬러패치!!
PDA식약처 검증된
피부 친화 Tpe겔 접착제 사용!!

천연광물의 원적외선 파동에너지 기술과
한의학 14경락 361경혈 기반
색상학, 수리학, 명리학을 접목하여
경직된 세포를 마사지하고 통증을 예방 · 완화하는
기술을 패치(파스) 한 장에 담았습니다.



자면서 저절로 건강해지는 패치(파스)
"취침 전 붙이고, 기상 후 떼세요"

1+1 소비자가 ₩99,000 → 60%할인
₩39,600 총 80매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어보세요
사용법이 자세히 나옵니다

허리통증
무릎통증
어깨/목통증
손목/발목통증

NAVER 마하몰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무진 스님의 **불국토 경주 남산**에 오르다 ㉒ 동남산 소재 석탑들



▶한줄 요약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경주 남산 천룡사는 신라의 국운과 함께한 사찰이었다. 지금 천룡사지에는 최근 불사를 한 천룡사가 넓은 부지에 세워져 있다. '경주 남산의 불국토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흥하는구나!'

남산 불국토 불사 이루니 해동이 흥하리

보통 동남산의 불국토 순례는 통일전 앞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시작한다. 칠불암과 신선암을 참배하는 왕복 코스다. 주차장에서 몇 걸음 움직이면 삼국시대 연못인 서출지가 바로 보인다. 여름에는 연꽃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가을에는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 연못에는 조선시대 지은 이락당(二樂堂)이 있다. 서출지에서 '양피 저수지'를 향해 걷다 보면 거의 다다를 무렵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오산곡 제1사지)이 남산 능선을 배경으로 우람하게 서 있다. 여기가 〈삼국유사〉 사금갑(射琴匣)에 나오는 '양피사'로 보인다. 이름이 양피사 동·서 삼층석탑이면 더 멋지지 않을까!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전)양피사 동·서 삼층석탑이면 될 것이다. 이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전하고 있다는 (전)을 붙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경주 남산 천룡사지와 천룡사지 삼층석탑. 천룡사는 신라의 국운을 함께한 사찰로 전해진다.

한국의 사찰은 산에 있다고 보통 생각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평지에 있던 사찰들을 거의 모두 없애버려서 산지의 사찰만 남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한국의 사찰은 산에 있다'라는 생각이 고정된 것이다. 도심 근방의 평지에 있던 사찰은 산지 사찰과 비교할 때 더 크고 웅장했다.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오산곡 제1사지)이 있던 사찰도 그렇다. 서탑 옆에는 최근에 창건된 불탑사가 있는데 내부에는 옛 사찰의 초석과 장대석이 있다. 금당 자리 더 뒤에도 최근 창건된 문수암 법당이 있다. 이 일대 전체가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이 있던 사찰 터다.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은 서로 다른 모습의 쌍탑으로 특이한 모습이다. 동탑은 높이가 7.04m이고 서탑은 5.55m로 동탑이 높다. 1916년 해체되었는데 서탑의 1층 몸돌에 빈 사리공이 있었다. 동탑은 2층 지붕돌 상부에 사리공이 있었는데 청동불감파견과 여러 가지 사리물품이 발견됐다.

동탑은 모전탑의 형식으로 조성했다. 모전탑은 벽돌 탑처럼 만든 석탑을 말한다. 지붕돌의 밑과 위가 각각 똑같은 5단으로 조각된 삼층석탑이다. 2중의 지대석 위에 잘 다듬은 돌 네 개를 다시 이중으로 겹쳐서 8개의 다듬돌이 하나의 기단석을 이룬다. 기단석 위에는 3단의 받침돌이 1층 몸돌을 받치고 있는 것도 특이한 모습이다. 남산의 용장계 지곡 제3사지 삼층석탑과 선도산 오르는 길에 있는 서악동 삼층석탑과 함께 경주 지역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전탑 형식의 석탑이다.

서탑은 2층 기단의 삼층 석탑으로 전형적인 통일신라의 삼층석탑 양식이다. 2층 기단에는 각 면에 2구의 신장을 둘러서 양각했는데 총 8구의 팔부신장이 새겨져 있다. 팔부신장은 불법을 지키는 신으로 천룡팔부라고도 한다. 통일신라시대에 팔부신장이 삼층석탑에 조성하기 시작하는 시기는 8세기 말부터이다. 경주 남산에는 창림사지 삼층석탑과 남산동 서탑이 있다.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에서 칠불암 쪽으로 가다가 작은 개울 다리를 건너면 (전)염불사지 동·서 삼층석탑(봉구곡 제1사지)이 보인다. 2009년 복원된 동탑은 1963년에 불국사역 광장으로 옮겨 (전)이거사지(移車寺址)의 탑재와 섞어 서 있었다. 이거사지는 청와대에 모셔져 있는 '경주 방형 석조여래좌상'이 있던 사지다. 한쪽에는 이거사지에서 나온 석탑 부재가 쌓여 있다. 2003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회랑지와 중문지 등이 확인됐다. 8세기 초 창건돼 12세기에는 폐사된 사찰이다.

두 탑은 이층기단과 지붕돌의 5단 받침 등 전형적인 신라의 삼층 석탑이다. 동탑의 전체 높이는 5.85m으로 서탑과 거의 같다. 금당 자리에는 최근 지어진 염불사가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염불사의 유래이다.

남산의 동쪽 기슭에, 피리촌(避里村)이 있고, 마을에 절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이름이 피리사(避里寺)라고 하였다. 절에 특이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항상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그 소리가 성 안에까지 들렸다. 죽은 후에 흙인형으로 진영(眞儀)을 만들어, 민장사(敏藏寺)에 안치하고, 그 본래 살던 피리사는 이름을 고쳐서 염불사(念佛寺)라 하였다.

1금당 1탑의 창림사지와 천룡사지
남산 구릉 위의 대표적 평지사찰들
부처님 치아사리 모셨던 창림사지
신라 국운 함께 할 것이란 천룡사지
천룡사 복원이 이뤄지니 '국운융성'

남산에는 구릉 위의 대표적인 평지사찰이 두 곳이 있다. 1금당 1탑 형식의 삼층석탑이 있는 창림사지(장창곡 제3사지)와 천룡사지(천룡곡 제2사지)다. 창림사지는 〈삼국유사〉에 박혁거세와 알영비가 태어난 곳에 궁궐을 지었는데 후대에 창림사가 됐다고 전하는 신라의 중요 사찰 중 하나이다. 서남산 길 오릉에서 나정을 지나 포석정으로 가기 전에 남산을 바라보면 구릉에 삼층석탑이 우뚝 서 있다. 오르면 너른 평지와 멀리 선도산의 멋진 풍경이 펼쳐져 보이는 창림사지 삼층석탑이다. 창림사지는 발굴조사 결과 불국사와 같은 경사지마다 층별로 독립된 공간이 확인됐다.

'경주 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창림사에는 〈법화경〉을 돌판에 새긴 석경의 파견이 24점 발견됐다. 남아있는 석경 파견으로 추정해보면 높이 150cm, 너비 100cm의 판석에 1행 30자 42행의 글자가 새겨진 19매의 석경이 있었다. 법당의 내벽에 세웠을 것이다. 또한 '사자문 비석받침석'과 '석등하대석' 그리고 두 구의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이 경주박물관에 있으며, 쌍귀부는 삼층석탑 밑에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경주부 고분조'에 보면 신라 최고의 명필 김생이 쓴 비문도 있었다고 한다.

창림사의 삼층석탑을 조선 순조 24년인 1824에 한 석공이 탑을 깨뜨렸다. 탑을 깨뜨렸을 때 발견된 탑지를 추사 김정희가 입수해 탁본한 명문의 내용이 1940년 간행된 '경주남산의불질적'에 있어 조성과정을 알 수 있다. 이것이 〈경주 창림사 무구정탑지〉로 신라 문성왕 17년인 855년의 조성 연도가 확인된 탑이다.

국왕 경응(慶膺)께서 무구정탑(無垢淨塔)을 만들고 바람을 기록한 글. 당나라 대중(大中) 9년 을해년 4월 윤달일에 세우다.

창림사지 삼층석탑은 흩어져 있던 것을 1979년 복원했다. 높이는 6.5m이다. 2, 3층 몸돌과 상층기단 팔부신장 중 4면의 석재 그리고 기단의 석재가 일부 교체됐다. 석탑은 2단 기단에 3층의 석탑을 이루는 신라의 전형적인 삼층석탑이다. 상단 기단의 면석에 8부 신장상을 양각으로 튀어나오게 조각했는데 남면 1구, 서면 2구, 북면에 1구만 복원되어 있다. 나머지 부분은 새로 만들어서 복원해 규모가 크고 화려하다. 주위에 흩어진 탑재로 보면 복원한 탑 이외에도 2기 이상의 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사〉에 보면 1021년 고려 현종 12년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었다. 그러자 경주의 창림사에 봉안된 부처님 치아사리(佛牙)를 개경의 궁궐 내전에 봉안하고 기도했다. 그러자 다음 날 비가 내렸다고 전한다. 부처님 치아사리를 모셨던 지금은 잊힌 신라 경주에서 귀하고 귀했던 사찰이 창림사였다.

천룡사지는 고위산 아래 400m쯤 높이의 평평한 중턱에 넓게 자리하고 있다. 차를 타고 서남산 길에서 용장골을 지나서 와룡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와룡사까지는 좁은 비포장길이다. 이후 1km 정도 비탈길을 걸어 오르면 어느 순간 탁 트인 하늘이 보이며 넓은 구릉에 삼층석탑이 보인다. 천룡사지 삼층석탑은 높이가 7m이다. 1990년 동국대 박물관에 의해 쓰러져있던 석탑을 중심으로 주변을 발굴 조사하였다. 이때 1층 몸돌 위쪽에 깊이 15cm, 둘레 15cm의 사리공을 확인하였다. 1991년 진신사리 4과를 봉안하여 복원한 단층 기단 위에 세운 9세기 삼층석탑이다. 사찰 터에는 건물의 초석과 귀부, 석조 등이 있다. 1996년 발굴조사에서 3차에 걸쳐 중수된 금당과 총 11개의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삼국유사〉에 천룡사는 신라의 국운과 함께한다는 기록과 1040년 고려시대 최제안이 중건한 기록이 나온다. 이후 조선 후기까지 유지되다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보면 천룡사는 신라의 국운과 함께한 사찰이었다.

〈토론삼한집(討論三韓集)〉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계림(鷄林)의 땅에는 객수(客水) 두 줄기와 역수(逆水) 한 줄기가 있는데, 그 역수와 객수의 두 근원이 천재를 진압하지 못하면 천룡사가 뒤집혀 무너지는 재앙에 이른다." 속전(俗傳)에 중국 사신 악붕귀(樂鵬龜)가 와서 보고 말하기를, "이 절을 파괴하면 며칠 안에 나라가 망할 것이다"고 하였다.

신라 말에 파괴된 지 이미 오래됐다. 중생사(衆生寺)의 관음대성이 젖을 먹여 기른 최은함(崔殷諴)의 아들 승로(承魯)가 숙(肅)을 낳고, 숙이 시중(侍中) 제안(齊顔)을 낳았는데, 제안이 바로 절을 중수하여 다시 일으켰다.

고려 최제안의 중건 기록은 천룡사가 폐사돼 신라가 망했지만, 최제안이 다시 천룡사를 중건하여 고려가 번영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다. 지금 천룡사지에는 최근 불사를 한 천룡사가 넓은 부지에 세워져 있다. 천룡사 삼층석탑 옆에 앉아 현 천룡사 법당을 바라보며 든 생각이다. '경주 남산의 불국토 불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흥하는구나!'

〈경기 광주 빛고운절 회주 · 조계종 교육아사리〉

불기 2569(2025)년 을사년(乙巳年)

신년 축하광고 접수안내

귀의삼보 하옵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의 해가 저물어가고 희망찬 새해가 밝아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갑진년 한 해 현대불교신문에 베풀어주신 관심과 은혜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복과 소망이 성취되는 새해 새 마음을 담아
불기 2569(2025)년 을사년 신년 특집호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루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의 법음이 세상 곳곳에 전해지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사	T. 02)2004-8204	F. 02)737-0698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충청지사	010-8341-0560	유재상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광고내용
임원명단, 축하문구, 이미지

접수문의 02)2004-8204
hyunbul1994@naver.com

계좌번호
농협 053-01-269088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07호 | 15 | 전면광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평
- 건평 : 60평 외
- 시내중심,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30억
- 위치 : 경남
- 부지 : 1000평
- 전각 : 대웅전 외
- 공원옆, 주차가
- 매가 : 승계협의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채권상담 등 상담받습니다
※전국 사찰, 땅, 다량 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010-4586-4525

사찰(급)안내

노환으로 급매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금장리 127-1번지
- 총평수 470평(대지 340평, 평밭 130평)
- 대웅전 20평, 요사채 50평, 산신각 5평
- 칠포해수욕장 차로 7분 거리, 시내 10분, 죽도시장 30분
- 가액 : 3억 6천(대출 2억 천육백만원)
- 물은 지하수입니다.

010-3741-3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시 안동6거리 선암다리 5분, 김해공항 15분 동김해ic서 5분 거리
- 건평 : 대지 270평
- 창건 30년
- 가액 : 대출 8千만원 안고 6억원

010-6898-9114

사 찰 안 내

★전통사찰, 요사채불사 진행중★

- 위 치 : 경기도 하남시 (전통사찰 선법사)
- 평 수 : 1,700평(법당, 산신각, 요사채, 화장실, 주차장 등)
- 가 액 : 상담 후 결정

보물 981호 마애약사불좌상

010-3340-2654

사 찰 안 내

도심 포교불사에 함께 동참 운영 하실 뜻있는 출가자 및 재가불자님을 정중히 모십니다.

- 위치 : 충남 부여
- 금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8층 건물에 3층 154평의 넓은 법당
- 시설완비, 주차공간 확보
- 개원식 앞두고 (사정상) 전세 운영 가능
- 절충 협의

010-7174-1711

사 찰 안 내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185-53
- 문전천황 기도도량
- 약 8천평 15억원

054-972-108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10억

010-6325-5112

사 찰 안 내

사찰 최적 한옥

- 위치 : 합천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해인사ic서 15분 거리
- 대지 : 158평(실평수 훨씬 많음)
- 건물 : 한옥(목조) 25평+황토방 별도 5평
- 가액 : 협의 후 결정

뒤에 산이며 마을 끝부분으로 조용하고 사찰지로서 최적지

010-3824-084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 (공영주차장 근처) (일산역 6분거리)
- 규모 : 40평 정도(3층)
- 보증금 : 300만원 월세 40만원
- 삼존불(동불) 탱화, 불구, 집기 일체, 호신불 230불 가량 등
- 모든 시설 포함 2000만원에 넘김 (조정 가능)

010-2847-62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도청 부근
- 부지 : 약 1300평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요사채2동
- 석등 포대화상 황토방
- 명혈 명당 경관수려함
- 가액 : 9억 절충

010-9692-577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상리면 사찰
- 대지 : 120평
- 건물 : 건물외 부속건물 약 30평
- 난방 : 태양열 시설이 되어있음
- 가격 : 1억 1000만원 (절충가능)

010-5436-5801

사 찰 안 내

- 위치 :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130번지 해동암
- 대지 301평, 법당 10평, 요사채
- 가액 : 1억 3000만원 (절충가능)

061-863-0133

사 찰 안 내

- 경남
- 종교부지 : 300평
- 대상사찰 : 26.6평
- 사찰부지 : 306평 총 : 632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6억 8000만원

010-2993-33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남산동 (범어사역 5분)
- 3층 33평 (보 3백, 월 35만)
- 삼존불법당, 주방, 방, 베란다, 에어컨
- 시설완비 (바닥 전체 도시가스)
- 몸만 오시면 됨. 시설비 절충

010-4305-4366

사찰 인근 주택 안내

김제시 금산면 모악14길 43
금산사 인근 주택

- 임야 177평, 대지 195평
- 안채 28.3평, 창고17.6평
- 추가 활용 부지 약 1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010-5008-1120

토 굴 안 내

- 주소 : 경주시 건천읍
- 면적 : 대지 110평, 전 316평
- 건평 : 임법당 16평 1동 (법당 1칸, 스님침실 1칸,(화장실 포함), 공양실 1칸)
- 절충 가능

010-9031-3570

사 찰 안 내

- 경남 양산시 동면 금산리
- 5300평 자연녹지 (현재 인법당 있음)
- 평당 10만원(가격 절충)

010-6319-860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진주
- 대지 : 30평
- 건물 : 3동
- 법당 8평, 주지실 6평, 용왕당 3평, 공양간, CCTV 4대
- 빈몸으로 오셔도 바로 법회 가능 합니다.
- 가액 : 6000만원

010-4416-020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옥종면 궁항리 삼신봉 주산
- 면적 : 약 360평
- 법당 : 20평,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창고, 화장실(2개)
- 해수관세음보살상 7m
- 즉시 법회 가능. 땅값만 받습니다.
- 매매가 : 8000만원(대출 2천만원 포함)

010-2807-0509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사 찰 안 내

부산 경남 울산·경북 경주 지역 사찰전문부동산

- 이 지역 사찰 매도하실 분이나 사찰 구하시는 스님 연락주세요. 거래 많이 이루어 집니다.
- 사찰직방(사찰, 포교당 매매 전문) NAVER 블로그 사찰직방 검색

010-7348-3140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 규모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3억 7500만원

010-5316-5669

사찰(급)안내

공기 맑고 아늑하고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현재 운영 중으로 좋은 인연 기다립니다. 조정 가능합니다.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대지 143평 (현재 운영중)
- 가액 9500만원



010-4180-17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갓바위 뒷길 근처
- 총 평수 433평, 현대식 건물 3동 1층 요사30평, 14평, 산신각 2평 2층 법당28평
- 건물 대지 종교건물
- 가액 : 3억 7000만원

010-5804-510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선물로 좋습니다

『산사품』명품 토종꿀

『산사품』 토종꿀은 충북 괴산의 낙영산과 보개산의 사찰주변 청정산중에서 채밀.
『산사품』 토종꿀은 1년에 1회 채밀합니다.
『산사품』은 『산사 품은 명품꿀』이라는 뜻으로 『산사품 한봉원』의 브랜드입니다.





산사품 판매로 인한 수익금은 사찰불사 및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불사에만 전액 사용됩니다.

산사품 드시고 건강하시고, 부처님 가르침속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가 격 : 100,000원/ 600그램, 전국무료배송
- 2024년 8월 26일부터 배송가능합니다. 선착순 사전 예약 받습니다.
- 주 문 : 043) 297-2514 •입금계좌 : 농협 351-05485375-13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사
- 주 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추정길 74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예방법 등성인병에는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가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507호 | 16 | 전면광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들 가운데
연꽃 같은 존재임을 알라.



부처님 말씀 읽기 -《관무량수불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학인모집

1. 부산영산재의 각 전승 교육사 의식 염불,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사무국 총무원 010-5511-7000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 재판, 암, 질병, 산소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배우가 일찍 죽는 관상, 귀신 붙은 관상,결혼 못하는 관상, 자식이 일찍 죽거나 질병관상, 중풍, 뇌졸중 관상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성명학, 사주명리, 손금, 상술비법
- 스님,무속인,법사,무당,일반인,공무원 특별 개인지도
- 신을 받았어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 작명 아기이름, 개명

상담문의 010-4014-8822 타로특별비법지도
365일 무료 숙식제공 교육장. 상술, 언변 비법 전문지도

비구 ·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위치 : 경북 성주군

010-6263-2425



010-5105-5000

의식은 불교의 꽃 (행사대행)

49제, 점안, 기타, 바라, 살풀이

30년 수행 공덕으로 귀사찰에 불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5270-8260 / 010-6785-1130

절마당 닷컴을 오픈했습니다.

절집안의 필요한 종무원 구인구직 및 절부동산 안내와 이름작명을 빠르게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절마당 운영자 합장

www.절마당.com

승가 유품정리 안내

스님 일반인 유품정리
사찰 법당 철거 해드립니다
최대한 정성껏 최소의 비용으로 부담없이 해드립니다
주소:부산시 동래구 동래로 159번길 58-7 동호(A) 309호

010-5507-7080 이주현

주지 구함

경남 하동 악양
전통사찰 500평
퇴마 잘하는 주지스님이나
퇴마 보살 구함

010-8298-380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최고급 암컷흑염소 전문 염소명가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썹(HACCP) 인 증 업 체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흑염소진액

골드





할인행사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누구나
인생의 기로에서 지표가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삶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창원시 · 경남 고성



상담 : 010-2090-4030

불교의식(행사대행)

사찰의 모든 행사
원하시는대로 완벽하게
해드립니다

영산재 이수자 연암당
010-6219-4757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선 禪 갤러리 작품실

수강생 모집

탱화 불화 ⇒1년 과정 ₩400만원(주2회)
선화 [달마도 관음도 동자도] ⇒3개월 과정 ₩100만원(주2회)
요일과 시간(2시간) 선택 자유

한국전승문화연수원 선 禪 갤러리
(02) 722-345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길11 (4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 20 (1층)
(010) 4943-3459

사찰전문 건축공사

1. 사찰 지붕공사(칼라 강판 · 판넬)
2. 화장실 등 사찰 수리
3. 요사채 창고 등 신축 수리
4. 전기판넬, 보일러 등 난방 공사
5. 전기배선, 조명 공사
6. 진입로, 옹벽, 기타 토목공사

*공사관련 모든 사항 상담 가능

대성 010-3817-8075
개발 010-3824-0846

사람을 찾습니다

법명 : 공덕심 (보살)
나이 : 78세 (돼지띠)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연락주십시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분 연락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010-3152-273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범음 범패 교육도량

통영 안정사의 전통소리
바라춤, 작법무,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 행사
정성껏 해드립니다

부산 온천장 미타사
010-3653-5151

수행하며 오래도록 절에 계실 분 공양주를 모십니다

경북 예천 용화사

010-6529-2005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생을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천 광 암 H.P 010-8673-4426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자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메바 소녀들의 저주 탈출기



이안의 Media In Buddha

㊶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영화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 한 장면.

지금이 딱 그 시기다. 수능 시기. 성당이나 교회, 무속도 저마다 합격 기원 기도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입시철 기도의 스펙터클은 불교가 클리셰(의도된 힘이나 새로움이 없어진 진부한 상투구, 상투어)다. 이때가 되면 절에 가서 100일 불공이나 108배도 하고, 초도 켜고, 연등도 달고, 수능 기원 이름을 적어 기와도 올리고, 착 감기는 염주도 사서 입시생 팔목에 채워준다. 불자들은 당연히 드리는 정성이겠거니 하지만 불자 아닌 사람들도 그런다.

수능 기원 잘 들어주신다고 입소문 난 이름난 절, 영험하다는 불상 앞에서는 학부모들 무릎에 굳은 살 배기도록 드리는 절이며 기원이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다. 수능 전날과 당일이면 대부분의 방송국에서는 봉은사나 동화사 같이 이름난 절에서 눈 꼭 감고 염주를 굴리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비춰주며 매년 주요 뉴스로 새로 보도한다. 수험생은 매년 새로 생기니 당사자와 가족들에게는 처음이면 처음이라 떨리고, 재수나 그 이상의 재도전하는 수험생들은 실패의 기억 때문에 떨리니 엄숙하고 진지하기 이를 데 없다.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의 주인공들은 입시를 앞둔 여학생들이다. 그리고 한 여학생이 수능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절에 간다. 불심이 깊어서 가는 건 아니다.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듯 입시철 반짝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다. 스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스님이 수능 합격 기도발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도 아니다. 그 스님이 전설적인 학교 선배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어떤 전설이냐고? 무려 수능 전국 수석을 했고, 대학 졸업 후에는 비구니가 되어 지금 지연이 찾아가는 절의 주지 스님이 되어있다는 것이다. 지연이 스님을 찾는 까닭은 공부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들러붙은 학교 귀신 때문이다.

입시 포트폴리오 제출할 영화를 함께 찍고 있는 세강여고 방송반 지연(김도연), 은별(손주연), 현정(강신희)는 고등학교 3학년, 각자 야무진 미래를 꿈꾸고 있다. 영화감독 지망인 지연은 연출을 하느라 심각하고, 인플루언서 연예인을 목표로 하는 은별은 카메라 앞에서서 연기하는 틈틈이 SNS 방송에 열심이다. 묵묵히 카메라를 들고 있는 현정은 촬영감독이 되고자 근력을 기르려고 아령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서 함께 영화를 만드는 이 소녀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아메바'로 불린다.

아메바라고? 단세포 생물인 그 아메바? 아니 왜? 입시공화국, 학벌 서열 계급에서 바닥을 깔아주는 이 학생들 내신이 8등급이라서. 공부를 누구나 잘 할 수 있는 거면 왜 내신에 수행평가까지 등급을 나누고, 수시·정시 나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학교 지원하느라 용을 쓰겠어? 누군가는 공부 머리가 있고, 누군가는 예체능 감각이 있고, 또 누군가는 사회성이 좋은 거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딱 성적표 등급 나오면 대부분의 8등급 받은 학생들은 풀이 죽게 마련이다. 그 성적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전공에 들어가기 어렵다며 '아메바' 소리 듣는데 무심하긴 어렵다.

8등급 여고생들 학교에 붙은 귀신과 숨바꼭질
학원물로 시작해 호러로… 저주에서 살아남기

좀 오래된 학교들은 전설이나 괴담이 있고, 이 여학생들이 다니던 세강여고에도 전설이 있다. 개교기념일에만 나타나는 귀신이랑 밤새 숨바꼭질해서 잡히지 않으면 귀신이 수능 정답을 가르쳐 준다는 솔깃한 전설. 심지어 1998년에는 무려 세 명의 선배가 수능 만점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다. 선배들은 저렇게 잘했는데 자신들은 8등급이라니 참 맥 빠질 수밖에.

그래서 지연은 막바지에 들여다 봤자 성적 오르기 힘든 교과 공부가 아니라 방송실 컴퓨터 앞에 앉아 포트폴리오로 제출할 PPT 자료를 만들기로 한다. 방송반 같은 동아리에는 해묵은 기자재도 쌓여있고, 선배들이 만들었던 자료도 쌓여있고, 지금 동급생인 친구들 낙서도 있기 마련. PPT가 영 마음에 차지 않는다. 그러다 우연히 캐비닛 안에서 '1998년 개교기념일 귀신 숨바꼭질'이란 이름이 적힌 비디오테이프를 발견하게 된다.

수능이 코앞인데 파일도 아니고 비디오테이프라니! 방송실에는 VCR 기기도 있겠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작업하느라 지친 지연이 비디오테이프를 보기 시작하면서 학원물로 시작한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은 호러 장르로 스르르 빠져든다. 수능 만점 맞았던 선배들이 남긴 그 비디오는 익숙한 공포영화들을 섭렵한 김민하 감독의 연출로 오싹한데 유쾌하고, 조마조마한데 산뜻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한 끝이 다른 재미로 관객들을 비명과 포복절도 사이에서 널뛰게 한다.

IMF로 국가부도가 현실 공포이던 1998년, 한물 간 줄 알았던 학원물+공포물 장르로 한국 호러영화사의 새로운 장을 연 〈여고괴담〉이 개봉됐다. 2024년 세강여고 여학생들에게 〈여고괴담〉은 아마도 클래식과도 같을 것이다. 비디오테이프로 귀신이 활성화되는 〈링〉도 그 시기였다. 〈여고괴담〉과 〈링〉은 모두 흥행에 성공하며 시리즈로 이어졌다. 매년 치르는 수능이라도 매년 새로 입시 불공드리는 기사가 나오듯 〈여고괴담〉과 〈링〉 시리즈는 신인 배우들과 신인 감독들의 조합으로 서늘한 재미를 주었다. 그러면서 〈여고괴담〉에서 귀신이 복도에서 다가오는 점프컷 장면이나 〈링〉에서 머리 푼 귀신이 TV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장면은 지금까지도 밈이 되고 있다.

김민하 감독은 세강여고 학생들과 이런 공포영화의 밈들을 가지고 한바탕 놀아 보자고 관객들을 초대한다. 그렇지만 이 학교 귀신은 〈링〉이나 〈주온〉 시리즈의 귀신들처럼 간 떨어질 듯 놀랍기만 한 귀신이 아니다. 〈월하의 공동묘지〉에 나오는 귀신처럼 머리를 풀고 출몰하지만 한국 전설 속의 귀신들이 거의 그렇듯 딱 한국 귀신이다. 누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따라 붙는다.

'장화홍련전'의 귀신이 사또를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귀신보고 놀란 사또가 제 풀에 죽은 것처럼 〈아메바 소녀들과 학교괴담: 개교기념일〉을 보면서 소녀들도, 관객도 으스스한 기운에 잔뜩 겁은 나지만, '귀신 숨바꼭질'을 하게 된 이상 잘 도망가고, 잘 이겨내야 한다. 숨바꼭질은 원래 잡힐까봐 긴장하는 놀이고, 긴장이 클 때 놀이가 더 재미있게 된다.

학교에는 종교부도 있는데, 종교부에는 일본어가 이상한 듯 유창한 2학년 후배 민주(정하담) 딱 한 명뿐이다. 그 단 한 명이 요괴나 귀신 부리는데 꽤 전문적이라니, 우리의 쫄보 아메바 소녀들은 최선을 다해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후배에게 도움을 청한다.

아메바 소녀들은 선배스님이 준 염주와 가톨릭 세례명도 있는 은별의 묵주, 일본 요괴 이야기에서 하듯 소금까지 준비하고 귀신과 숨바꼭질을 시작한다. 김민하 감독이 아메바 소녀들을 연기하는 연기자들과 만들어낸 이 영화는 장르를 되풀이 하거나 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판을 만든다.

블록버스터 상업영화를 만들며 최첨단 고비용 VFX 컴퓨터 그래픽 범벅이 아니라 예전 방식의 특수촬영과 신세대 감성의 대사와 편집, SNS 라이브 방송 느낌의 화면에 흠뻑 빠져 비명지르고 웃자고 한다. 아메바 소녀들이 밤새 귀신과 숨바꼭질 하는 동안 촛불 켜고 목탁 두드리다 학교까지 달려온 선배스님의 진심이 부처님에게도 성모 마리아에게도 통하게 되면, 수능 그까짓 거, 다 같이 잘 보면 되는 놀이로 만들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영화평론가〉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㊸

1. 불교는 내가 가진 행동과 언어, 사고의 습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르친다. 삶과 세계를 움직이는 힘인 업(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지 생각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② 똑같은 사람인데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은 모두 신의 뜻이다.
③ 유쾌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의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십악업을 실천해야 한다.
④ 무심코 내뱉는 말이나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⑤ 모든 존재는 영원히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특성은 상호 간에 영향을 안 받는다.

해설 : 업은 행위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이전 행위의 결과와 영향 속 어느 정도 한정되어진 상황에서 다시 행위를 해가기에 특정한 행위의 경향성(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으로 내가 미래에 이루어갈 행위들은 과거와 현재의 행위들에 영향이 이유가 되어 생겨나는 것이지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2. 불교의 궁극적 목적인 열반(涅槃)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생사의 구속을 벗어난 해탈의 경지를 말한다.
② 열반은 죽고 나서야 실현되는 경지를 말한다.
③ 번뇌의 뜨거운 불길이 꺼진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④ 열반은 산스크리트어'니르바나(nirvana)'를 번역한 것이다.
⑤ '반열반(般涅槃)'은 다시 태어남이 없는 완전한 열반을 말한다.

해설 : 산스크리트어 니르바나의 음사어인 열반은 모든 번뇌로부터의 벗어남을 말한다. 번뇌는 태어남(생)과 죽음(사)의 반복에 우리를 구속시킨다. 그럼으로 열반을 얻으면 이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며 불길로 묘사되는 번뇌가 사라져 고요해진 상황을 말한다. 현재의 삶 속에서 열반을 얻는 것을 유여열반, 현재의 삶도 다하여 완전한 열반에 드는 것을 무여열반, 반열반이라고 한다. 그럼으로 죽기 전에도 열반은 실현될 수 있다.

3. 다음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삼보(三寶) : 불, 법, 승
② 삼독(三毒) : 탐, 진, 치
③ 삼업(三業) : 상업, 공업, 어업
④ 삼학(三學) : 계율, 선정, 지혜
⑤ 삼계(三界) :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설 : 삼보란 불(부처님), 법(가르침), 승(스님)을 말한다. 삼독은 탐(탐욕), 진(분노), 치(어리석음)이며 삼학은 계율, 선정, 지혜, 삼계는 욕계(물질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물질적 욕망을 벗어난 세계), 무색계(정신적 세계)이다. 삼업은 신업(신체 행위), 구업(언어 행위), 의업(정신 행위)를 말한다.

4. 부처님께서 사르나트(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들에게 말한 최초의 설법을 초전법륜이라 한다. 다음 중 초전법륜의 내용은?

① 공(空) ② 사성제 ③ 반야사상 ④ 유식사상 ⑤ 정토사상

해설 : 부처님께서는 사르나트(녹야원)에서 다섯 수행자에게 사성제를 설하셨다. 사성제는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로 각각 고통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원인이 집착임에 대한 성서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이다. 이 사성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다섯 수행자에게 본인께서 '이것은 고통이다, 이것은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사성제 각각의 모습을 드러내셨으며, '고통을 알아야 한다, 집착을 끊어야 한다, 소멸을 얻어야 한다, 도를 닦아야 한다' 사성제 각각의 모습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셨으며, '고를 알았다, 집착을 끊었다, 소멸을 얻었다, 도를 닦았다'라고 사성제 각각의 모습에 대해서 완성을 이루셨다고 설명하셨다. 이를 삼전십이행상이라고 하는데, 삼전이란 사성제 각각의 모습에 대해서 첫째 드러내고, 둘째 목표를 정하시고, 셋째 목표를 성취하시는 세 단계를 말하며, 세 단계에 네 가지 진리인 사성제가 각각 관찰되기에 십이행상이라고 한다.

정답 : 1. ④ 2. ⑤ 3. ③ 4. ⑤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이미령의
스토리텔링 경전에세이 22 반야심경 ①



▶한줄 요약
사실, 〈반야심경〉은 초심자들이 만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불교교리를 '완벽하게' 불교교리를 이해해야 〈반야심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사리자(사리불) 스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도 얻음도 없다'는 가르침



그림 · 최주현

쉬우면서 어려운 불교경전 '반야심경'
지혜마저도 "空하다"는 관세음보살님
'공부해 얻은 경지에 안주말라' 의미

초심자에겐 어려운 경

어느 사이 초기경전에서 대승경전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대승경전의 시작은 그 이름도 유명한 〈반야심경〉으로 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불자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경, 불교신자가 아니어도 '아제아제'라는 구절로 친숙한 경, 한문 글자 수로는 260자여서 길지 않아 아침저녁 외고 법회 때마다 봉독하기에 적합한 경, 이것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을 초심자들에게 많이 권합니다. 그럴 수 밖에요. 법회 때마다 봉독하니 반드시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우고 나면 그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말은 별로 없는데 알쏭달쏭합니다. 이것이 〈반야심경〉입니다.

사실, 〈반야심경〉은 초심자들이 만나기에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불교교리를 공부한 뒤에 읽어야 무난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불교교리를 이해해야 〈반야심경〉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반야심경〉은 관세음보살이 사리자(사리불) 스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반야심경〉을 차분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인생이 힘든 당신에게

지금 당신은 인생살이가 참 고달프고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합시다. 그 근심과 슬픔과 괴로움을 어떻게 달래보겠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심심풀이땅콩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거나 맛집을 찾거나 술 한 잔을 기울이거나 영화나 공연을 보러 가면 됩니다. 그보다 더 간단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에 있지요. 1분이 되지 않는 숏폼은 두어 시간 정도는 뚝딱 날려버립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은 대체로 임시방편이지요. 그때그때 '땜빵'하듯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괴로운 감정을 떨쳐 버리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언젠가는 또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덮치고 말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래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임시방편은 똑똑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냥 해결이 아닙니다. 근심, 슬픔, 우울, 불안,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또다시 그런 부정적인 기분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고, 괜히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헛발질을 하고 번민에 신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오래오래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 부처님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은 이제 부처님이 일러주는 방법을 따라서 생활 속에서 실천해봅니다. 수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자"라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 것이지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친구나 주변 상황이 관찰대상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든 내 마음, 내 자신을 관찰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 지금 짜증 나고 힘들어하는 내 자신은 바로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면서 자기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즉, 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런 나는 내 가족과 세상과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는 것이 오온, 십이처(육근과 육경), 사성제, 십이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불교교리입니다. 이런 교리가 자세하게 실린 경전이 초기경전인 〈니까야〉와 〈아함경〉입니다.

수행자는 이런 교리를 아주 열심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경지까지 가야 한답니다. "아, 그런 것이구나"하며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찬찬히 사색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깥의 그 어떤 일에도 더 이상 휘말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되고, 불안하지도 않고 화가 나지도 않게 무심하고도 무덤덤하게 되며, 그러면서도 마음은 평화롭고 느긋하면서도 기분 좋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지까지 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아라한이라 불리는 성자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지난 연재에서 아라한은, 부처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고(무학),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켰고(살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한(응공)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 중에서도 최고의 아라한이라 할 만한 분이 바로 반야심경에 등장하는 사리자입니다. 그러잖아도 사리자는 지혜제일이라고 부처님에게 찬탄을 받은 분입니다. 부처님도 인정할 만큼 가장 지혜롭고, 그 심오한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분이지요.

아, 그런데 잠깐만이요. 바로 위의 문장을 다시 한 번만 눈여겨 봐주세요. '지혜'라는 말이 나왔고, '얻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이 두 단어를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야심경〉 속에 '지혜도 없고 얻음도 없다'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리자를 부르는 관세음보살

아무튼 사리자는 바로 그런 성자(아라한)입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이 이만큼 지혜롭고 깨달음의 경지를 얻은 성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리자여!"

대체 왜 부르는 것일까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인가를 더 가르쳐주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리자는 부처님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경지에 올랐다고 인정을 받았는걸요? 더 배울 것이 없는 성자에게 또 뭘 가르치려는 것인가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경지에 안주하면 안 된다고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너무 싱겁습니다.

하지만 고생고생해서 얻은 그 성자의 경지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관세음보살님이 나섰겠습니까? 관세음보살(관자재보살)이 사리자를 불러서 그걸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불교교리는 '원래' 빈 것이고, 그런 '빈 것(空)'의 차원에서 보자면 그런 교리는 처음부터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처음부터 사리자에게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주면 될 일 아닌가요? 기껏 아라한이 되도록 일생을 바쳐 수행하고 그 경지에 도달해서 "이제 나는 잘 도달했다"라고 안심하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대신 나서서 "그대가 공부한 교리는 빈 것이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하니 헛고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맥이 빠지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것은 다 뭐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라한 중에는 관세음보살의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두 귀를 막아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됐거든요. 난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해탈의 경지에 고요히 머무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법화경〉 앞머리에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법회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 충격이 너무 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단 아라한까지만을 제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 가르치는 아버지처럼

나는 이 부분에서 아이에게 두발자전거를 연습시키는 친절한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아이는 처음에 작은 보조 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로 시작합니다. 아이는 조금 연습하고 어렵지 않게 씽씽 달립니다. 아이 마음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잘 탈 수 있다는 자부심도 넘쳐흐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은 좀 다릅니다. 충분히 네발자전거를 타면서 달리는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기다려준 뒤에 보조 바퀴를 떼어버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는 두 발 자전거 소리만 들어도 겁에 질립니다. 그때 아버지가 약속합니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자전거 뒤를 꽉 붙잡고서 함께 달려줄 거니까."

아버지 말을 철석같이 믿고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두 발 자전거의 페달을 밟습니다. 비뚤비뚤 아슬아슬 아이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 잘 한다. 아빠가 붙잡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한동안 아이 자전거를 붙잡고 달리다가 아버지는 슬그머니 두 손을 뗍니다. 아이는 그런 줄도 모르고 내달립니다. (계속)

〈경전이야기꾼, 불교강사〉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507 호 현대불교
2024년 11월 13일(음 10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68년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쉴 수 있어야 진짜 놓는 것이다

아니, 만나고 만남도 없이 또 만났군요. 사계절이 한결같이 이렇게 오늘인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은 따로 없군요, 만남도 따로 없고. 그러면서도 역력히 또 반갑게 이렇게 만남이 있으니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가는 것을 알아야 온 것도 앎으로써 또는 귀로 보고 눈으로 들을 줄 알아야 대충 자유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자1(남)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어느 책에서 과학은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가운데에서 느낌으로 아는 것이라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연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 과학의 발견은 종교적인 데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심성 과학과는 어떠한 관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그대로 우리 생활이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고 부서지고 또는 모두 모였다 흩어지고 책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생활이 그대로 과학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고 과학과 선(禪), 과학은 선이라는 그 자체와는 다릅니다. 이 과학은 과학대로 나를 먼저 발견해 가지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아 가지고 둘이 아닌 나툼을 알아야만이 이것은 100% 간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은 물질로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소 폭탄을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소 폭탄 있기 이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천체망원경이 100%라 할지라도 전체 볼 수가 없습니다. 듣는 것을 전체 무전통신기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전체가 아니 됩니다. 또는 남의 속을 탐지기로써 다 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과거를 전체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넣어 주어야 알 수 있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팩시밀리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온다고 하더라도 물질을 넣어야 물질이 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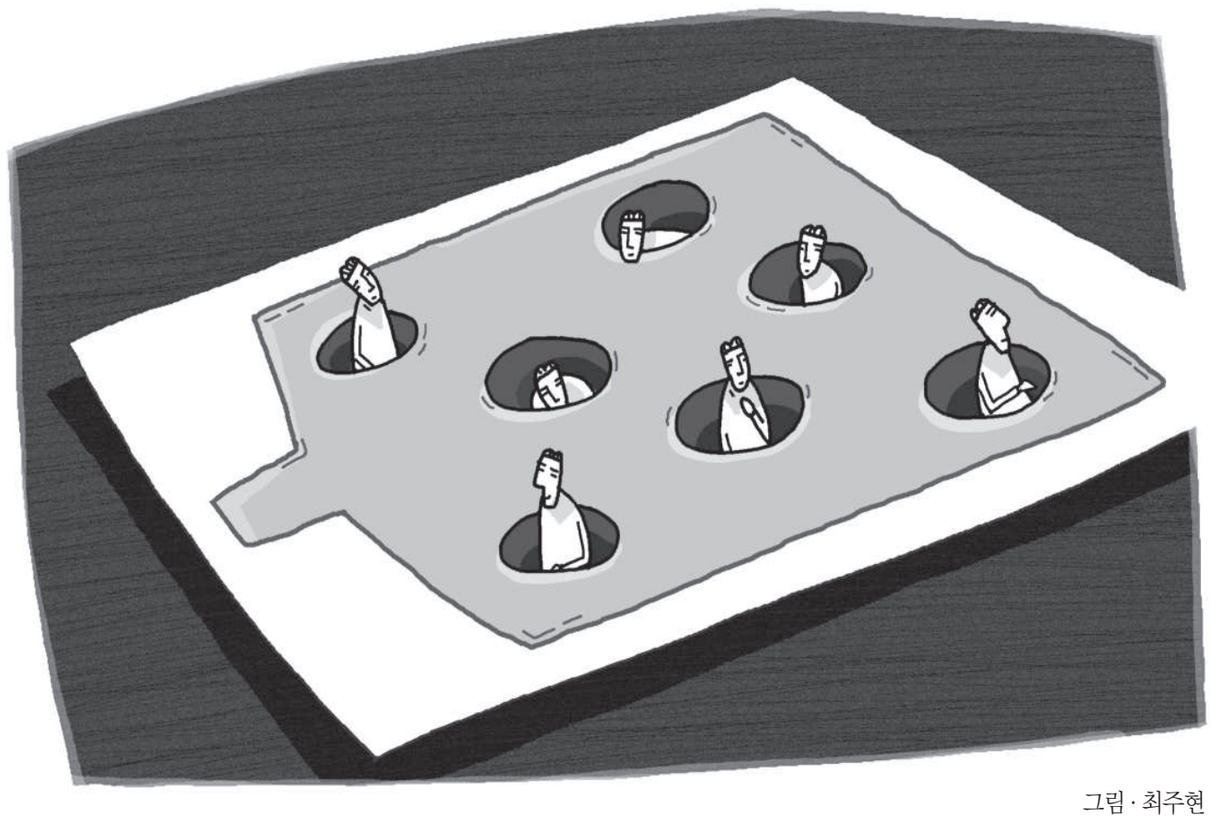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일러 주신 이 길의 진리는, 그래서 평등공법이요, 칠활궁공법이요, 팔수레공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리는 너무나 묘해서 심안으로 볼 때는 빛보다 더 빨리 천체를 간파할 수가 있고, 듣는 것은 듣지 않는, 즉 말하자면 무심 도리까지, 하다못해 지렁이가 기어가는 것까지, 꽃이 한 송이 피는 것까지도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과가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학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질문자1(남) 결국은 그럼 과학의 바탕은 바로 이 마음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큰스님 과학의 바탕은 일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 내기 이전을 먼저 간파해야 마음을 내서 과학이라고 발전을 할 수 있고, 일체 만법에 모든 걸 분야에 맞게 할 수 있죠. 근본이 마음이니까 마음 떠나서 뭐 있겠소.

질문자1(남)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일체를 놓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일체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체의 생각을 바라보다 보니까 육근, 육적이 내 집을 차지해서 이렇게 휘젓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큰스님께서는 주인공에서 그 의단이 자생적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체를 놓는 것과 의단을 내는 것과 가끔 가다 혼동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일체를 놓는 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걸어오셨지만 뒤 발자취를 남기지 않고, 짊어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냥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간다는 말 자체도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날 마음으로 끼어잡고 착을 두고 욕심을 두고 집착을 하고 모두 이렇게 하니까 그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되풀이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망상으로서 모든 것에 끄달리는 것과 지금 놓는 것과 어떤 것이 더하냐고 했는데,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그대로 자생을 길러 내는 원소 자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거죠. 그 생각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망상이다 하는 관념 그것을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놓는다' 하는 것은 '이게 뭣고.' 하기 이전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한 일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과거로부터 이끌어 온 주인이 모든 것을, 몸을 시자로 끌고 다니면서 아프게 됐으면 제 시자를 제가 낫게 할 수 있고 또 이끌어 갈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모든 일체 만법을 다 그놈이 하는 일이니 그놈 탓으로 돌려야 하고, 그놈으로 하여금 모든 길을 인도한다는 걸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번연히 뜨고도 쉬는 그런 자체가 돼야 그것이 진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는다' 그러니까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놓는 겁니다.

내면에 그대로 들이고 내는 거, 이거 보십시오. 그거를 모르시겠걸랑 들이는 숨, 숨 쉬는 것 있죠? 들이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고, 내쉬는 숨 자체가 없다면 죽습니다. 그러면 들이고 내는 숨 쉬는 것은 어떤 놈이 쉬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생활도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이 계시니까 들이고 내죠? 여러분이 계시지 않다면 들이고 낼 것조차도 없죠.

그리고 여직껏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끌고 온, 진화되어서 끌고 온 장본인, 지금까지도 끌고 가는 이런 장본인 주인이 아니라면 간파를 못 하니까요. 그 주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도 못 하니깐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으로써 다스려서 놓는 데 아주 간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1(남) 그럼 지금 큰스님 말씀을 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일체의 생각들을 그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가 놓는 것이 바로 의단을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큰스님 그래야만이 의단도 대의단이 나오지 의단을 일부러 지어서 의단을 한다면 그거는 빈 맷돌 돌리는 거와 같다 이 소립니다.

내가 한때 이런 예가 있었죠. 이 길이 대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집 고집을 다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 19면에서 계속

로(大路)의 길이 아니니라. 정말 발도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산골, 아주 그냥 천야만야한 데를 그게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마음은 체가 없어서 지구 바깥에도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도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육신의 길만 찾아서 다닌다면 그거는 기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한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기 마음의 거미줄에 얽혀서 발목을 못 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나는 금방 듣고도 또 잊어버리죠. 얘기하다가 잊어버려요. 지금 뭐라고 그랬죠? 하하하.

질문자1(남) 바로 그러한 모든 생각을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다 놓는….

큰스님 음, 그랬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이 실험이 되고 또 체험이 되고 이런다면 스스로서 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대로 들이고 내는 그놈이 한다는 그 한 가지 믿음만, 뜻만이 남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묘하고 얼마나 무변하고 얼마나 광대한지 자기도 모르게 어떤 때는 싱긋이 웃을 때가 있고요, 나는 가끔 그러길 잘해요.

옛날에도 어떤 한순간의 일이었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오면 자식이 하나가 되고, 자식이 부모한테 오면 부모가 하나가 되느니라. 그것은 무슨 연고인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만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하늘을 보고 웃지 않을 수가 없었고 땅을 보고 울지 않을 수가 없었더란 얘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모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들이 전부 업을 짓고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면 될 거를 그냥 내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걸리지 않고 걸어가나 하는 생각에 고만 걸리는 겁니다. 다리 많은 지네가 어떻게 서슴지 않고 잘 걸어갑니까? 다리가 많다는 생각을 안 하고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두 다리로 걸어가건만 두 다리로 걸어가는 것조차도 걸릴까 봐 바들바들 떠니까 걸리죠. 모두가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의 잘못이 거기에 대두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려서 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스려야 한다. 잘못 나가는 것을 다스려 놔야 된다. 그냥 무조건 다 여여하다고 해서 도둑질을 해도 괜찮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을 아주 남한테 이익하게 행을 하고 이익하게 말하고 또는 이익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남) 방금 전에 큰스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저는 이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일체 놓는 것도 또 다스려 나가는 것도 그 한 믿음에 결국은 귀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될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 하하하. 어떻게 믿긴 뭘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믿어야죠. 자기를 끌고 다니는 그놈이 바로 자기 마음의 주인인데 주인이 과거로부터 이끌고, 지금도 또 이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믿겠소? 허공을 믿겠소, 이름을 믿겠소, 고깃덩어리 형상을 믿겠소, 무엇을 믿겠소? 나부터 믿고 나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우주를 알고 세계를 알고, 내 나라도 생각할 수 있고, 내 가정도 생각할 수 있고, 사회 국가 모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때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자기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믿고 돈을 주며, 또 남의 보증을 서고 망하고 온통 이러나요? 어떻게 자기도 못 믿는 사람들이 남을 믿습니까?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것도 대신 아파 줄 수 없고, 대신 죽어 줄 수 없고, 대신 먹어 줄 수 없고, 대신 똥 눠 줄 수 없고, 대신 자 줄 수 없단 얘깁니다. 자식과 부모지간에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못 믿어요. 자기 자신인 자신을 어째서 못 믿습니까? 사람이 본래 직감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본래 그 자성신이 없다면 그 직감이라는 것도 없고 목석인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야지 어떻게 무조건 믿지 않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는 것이고 세계가 벌어졌는데, 내가 없으면 무효인데 나를 어째서 믿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물질에, 50%의 물질의 관념을 가지고 습이 되어서 졸졸히 그냥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집, 뭐, 또 날짜를 보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고집, 또 굴왕신이 내리면 집을 못 짓는다는 고집, 팔자 운명이 있다는 고집, 업보가 있다는 고집, 유전이 있다는 고집, 모두 고집을 세우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고집 고집을 다 몽땅 한순간에 놓으십시오.

예전에 어느 한 큰스님이 이런 말을 하십디다. "눈을 뜨고 삼 년만 쉬어라." 자거라 이 소리죠. 하하하. 눈을 뜨고 어떻게 삼 년을 잡니까? 생각들을 해 보세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를 믿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입니다. 일제 시대 때 먹을 거나 있나요? 건빵을 우거지에다가 넣고서는 푹푹 끓여서 한 그릇씩 먹는데 아, 딴 집들은 보리밥이라도 그래도 쌀 넣고 이렇게 해 먹는 걸 보았거든요. "아무개네 집은 그렇게 해 먹는데, 우린 이걸 먹어?" 그러니까 "그 집의 쌀밥보다 우리집 우거지에 건빵 넣고 끓인 게 더 좋으니라." 이러신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게 아예 천부당만부당했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못났든 잘났든, 못 배웠든 잘 배웠든 내 부모가 제일인 것처럼,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내가 있음으로써 내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있음으로써 나를 끌고 다닌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고 과거 또는 업보, 유전성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윤회성, 이런 것이 다 몰락 그냥 녹아 버리는 것입니다.

질문자1(남) 마지막으로 질문 올리겠습니다. 육적, 육근의 작용이 공하여 칠각이라 설하시는데 육근의 작용과 그것이 공한 칠각, 팔식, 구해탈 그리고 십이인연을 좀 더 상세히 설법해 주십시오.

큰스님 하하하. 그거를 이론적으로 말할 게 아니라 육근, 육진, 육식이 공했어. 공해서 칠각이 되고, 아까도 그랬잖어, 칠해탈이라고. 칠해탈도 되고 칠활궁공법도 되는 거지. 이거는 그대로 들어가는 법이야. 이 선(禪)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무슨 육근이 어떻고 육진이 어떻고 육식이 어떻고 이런 게 하등 상관이 없어. 그러다 보면 어느 하시절에 내가 나를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깐 아까 얘기했듯 그게 공했어, 전부가. 일체가 다 공했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거 할 때 나라고 할 수 없으니까 부처라고 했던 거야. 반야심경에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다' 하는 그 자체가 그대로, 그대로라구.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빙빙 돌아서 만날 그놈의 걸 굴려 봤자 맛은 생전 못 보고, 그 씨를 되심어서 되나오고 되먹이고 되나오고, 되먹일 수가 없어.

질문자1(남) 감사합니다.

질문자2(남) 부모 형제 간에 만나기만 하면 서로 죽이려고 하는 법이 무슨 법입니까? 아무리 아무리 천도를 시켜도 안 돼요.

큰스님 그거 되는 방법이 있죠. 그놈더러 해결을 하라고 그러세요. 허허허. 네놈이 과거로부터 날 이끌어 왔고 그놈도 과거로부터 끌어왔으니 그놈들끼리 해결해야지 내가 나서면 안 되죠. 그 속에 든 자기의 마음의 주인공만이 양면에서 다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한마음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아예 착해집니다.

질문자2(남) 인과응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큰스님 인과응보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없어집니다.

질문자2(남) 내내 천도를 했습니다, 조상들한테요. 그래도 절대 안 들어요.

큰스님 하하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마음으로….

질문자2(남) 저도 조상병이 천칙되었어요.

큰스님 글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무조건 하세요. 저 수원에 어떤 삼 형제가 사는데 아버지가 6·25 때 돌아가시니까 담요에다 뚤뚤 말아서 아무 데나 그냥 묻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고부터 삼 형제가 서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작대기를 들고 온 동네를 다 뛰어다니면서 때리고 싸우고 깨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삼 형제가 만날 싸우니까 그 어머니가 여길 찾아와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컸으면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좀 잘해 드려야지 담요에다 둘둘 말아서 그렇게 했으니…. 딴 데다가 잘 모시든가 화장을 하든가 이렇게라도 양심적으로 해야지, 안 그래요?" 하면서 거기다가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장시키고 천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랬죠. "그래, 아파서 드러누운 사람을 저희들만 살겠다고 산 채로, 그냥 놔두고선 달아나가서 그냥 죽게 만들어? 또 그렇게 죽은 걸 동네 사람들이 둘둘 말아서 갖다 묻은 거를 자식이 돼서 여직껏 내버려 두었어?"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담요에다가 둘둘 말아서 묻은 거를 아느녜요. 이렇게 답답해요.

질문자2(남) 그럼, 화장도 하겠습니다.

큰스님 하하하.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한마음 주인공에 맡기고, 진심으로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라고 일러 줬더니 그렇게 하고부터 삼 형제가 아주 절친해졌답니다. 그리고 집안도 잘되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하십시오. 자기를 자기가 못 믿으면 어떡합니까? 사대가 다 흩어져 버리고 또 새로 육을 이끌고 이 세상으로 또다시 나올 텐데 그렇게 못 믿어서 어떡합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1년 11월 17일 정기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못났든 잘났든 나 자체가 제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 진짜 자기한테 쏘십시오.
그러면 일천만 가지가 다 녹아서 스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法보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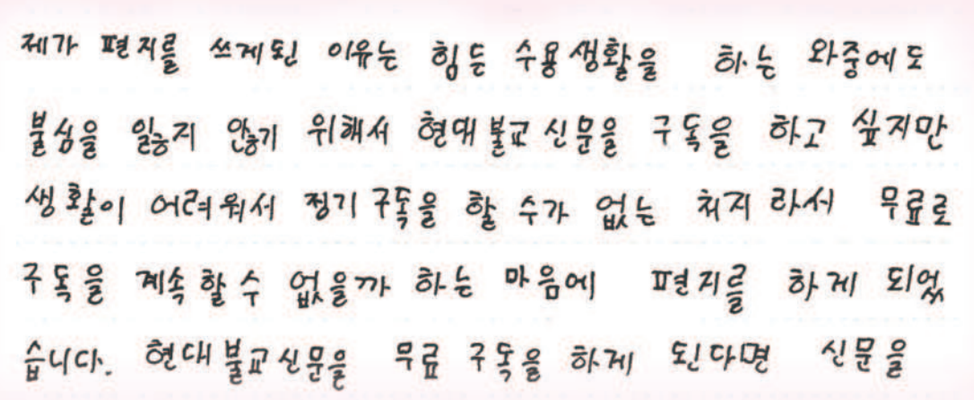
귀하의 매월 1만원으로 어려운 곳의 불자는 매주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법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 법보시는 독거어르신, 교도소 재소자, 군 장병, 병원 환우들에게 현대불교신문을 보시하는 공덕입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1만원으로 2부 보시.

02-2004-8212

계좌 053-01-269075 (농협,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제가 편지를 쓰게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되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현대불교신문 편집장님께

저는 00교도소에 수용중인 수용자 000이라고 합니다. 제가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힘든 수용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현대불교신문을 구독을 하고 싶지만 생활이 어려워서 정기구독을 할 수가 없는 처지라서 무료로 구독을 계속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에 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을 무료 구독을 하게 된다면 신문을 읽으면서 다시는 구속이 되는 일이 없겠다는 일념으로 매일매일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남은 시간을 반성을 많이 하고 불경 필사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00교도소에서 불자 000 올림.



하성미 기자의
心 心 talk talk

㉗ 계율로 폭력을 금지한 부처님

사랑과 폭력, 혼돈 말라…가정폭력은 '범죄'

한강의 〈채식주의자(2007)〉와 〈소년이 온다(2014)〉는 대한민국에 노벨상을 안겨준 쾌거의 수상작이다. 모두가 자랑스러워하지만 막상 글은 보면 무거운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폭력'에 대한 처절한 사유와 아픔으로 적어 내려간 그녀의 묵직한 물음에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잔혹한 행위에 대응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순응'과 '침묵'을 선택한다. 폭력이라 말하고 대항하려면 압도적인 세력에 무기력해지는 자신의 취약성을 마주해야한다. 순응과 침묵은 초라한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회피하고, 희생자와 함께 공멸의 길로 갈 것이란 예견이 만든 결과이다. 용감하게 질문을 던진 그녀의 글은 폭력에 쉽게 순응하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일깨우고,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에 희망을 더하리라 믿으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폭력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다. 대표적인 장소는 짐작하겠지만 가정이다. 가정폭력은 가장 약한 어린이와 여성에게 무차별적이다. 미국의 가정폭력을 폭로한 책 〈살릴 수 있었던 여자들〉에서 저자 레이첼 루이즈 스나이더는 "미국에서는 1분마다 20여 명이 자신의 반려자에게 폭행당한다"고 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2017년 한해에만 전 세계 여성 5만 명이 반려자나 가족에게 살해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 가족센터에서 가족상담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나의 경험에도 비춰보면 가정폭력은 대부분의 내담자에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이다.

식칼을 들고 위협하는 아버지를 보며 자란 아이, 목을 조르는 남편에게서 도망갈 수 없다는 아내, 기물을 모두 부수고 나서 아이들과 아내는 때리지 않았기에 폭력이 아니라는 남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채를 잡은 남편.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에서 흔히 접하는 내용은 "사랑해서 때린다"는 말이다. 격렬한 로맨스처럼 치부되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은 "죽고 나서야 벗어날 수 있었다"는 피해자의 말처럼 안타까운 결말을 낳는다.

심리상담을 하다보면 남편 혹은 부모의 폭력을 마주할 때가 있다. 이혼 위기에 있는 한 내담자는 "남편이 집에 창문을 다 깨부수고나서 내 목을 졸랐어요. 그리고 울면서 자신의 머리를 때리더니 집을 나가 한참 후에 들어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울더라구요"라고 했다.

그녀는 결국 이혼을 포기했다. 이유는 남편이 자신을 너무나 원하기에 떠나지 못한다는 것. 자신을 원한다는 표현과 절절한 태도가 사랑이라 그녀는 착각하고 있었다. 사랑과 폭력의 혼돈은 가정폭력의 가장 흔한 유형이다. 사랑은 안전과 신뢰 속에서 자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큰 방을 쓰겠다며 폭력을 쓴 육군 비구

'누구도 해치지 말라' 계송 기억해야 해

가정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폭력에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담자들에게 "폭력은 폭력일 뿐이다"는 당연한 명제를 반복해서 말해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대상은 남편이 아니라 아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생각보다 많은 아내들은 자신이 원인을 제공했고 자신도 때리며 저항했다는 설명을 자주 한다.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믿는 그들의 마음에는 폭력을 수긍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명시된 '범죄'이다. 법률에는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정폭력 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주거 수색,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 구걸 강요 등이다.

사랑과 폭력의 혼돈 속에서 헤매지 말라. 그 어느 누구도 약자를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다.

부처님도 폭력에 대해서는 계율을 세워 엄하게 금지하셨다.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협도 마찬가지로 금지하며 절대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삼았다.

부처님은 폭력을 쓴 육군비구(六群比丘, 계율을 어기고 살았던 나쁜 비구의 본보기)에게 계율을 제정해 폭력을 쓰지 못하도록 하셨다. 육군비구는 자신들이 승랍이 많다며 좋은 방을 쓰겠다고 억지를 부렸다. 그들의 주장에 대해 비구들은 항의했고 저항했다.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정당한 주장을 하며 대항한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정당방위도 폭력이라 인식하는 경우가 가정폭력에서는 많다. 정당한 주장에도 육군비구는 다른 비구들을 두들겨 패고 때리기 시작했다.

비명 소리를 들은 부처님은 "다른 비구를 성나고 불쾌하다고 때리면 빠찟띠야(율장 빠찟띠야 제 74번 계목)를 범하는 것"이라며 엄하게 금지했다.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누군가가 화가 나게하고 불쾌하게 만들어도 폭력은 금지됐다는 점이다. 이 당연한 내용이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에서 허용되는 지점을 잘 생각해보라.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은 가해자의 논리이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시 인상을 쓰면서 비구들을 위협한 육군 비구에게 계율을 강조하며 게송을 설한다.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내가 소중히 여기듯 남도 그러하듯 그 누구도 해치지 말라."



홍재화의
걷기삼매경

㉑ 약한 듯 강한 척추 곡선의 역학

척추 질환, '걷기'로 예방을

척추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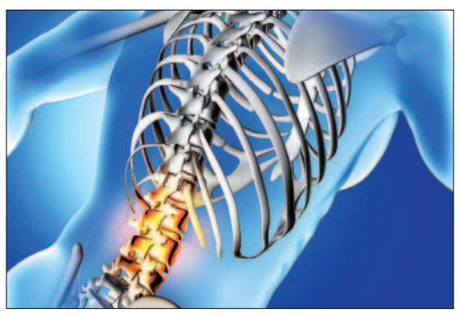
인간의 척추는 7개 경추(목뼈), 12개 흉추(등뼈), 5개 요추(허리뼈)를 가지고 있다. 요추 수의 차이는 흔하다. 인구의 3%는 4개, 5%는 6개의 요추를 가지고 있다. 척추는 직립 자세로 있는 동안 두개골 지지와 균형 작용을 하고 견갑골과 골반 간의 힘의 전달을 돕는다. 척추는 또한 뒤꿈치 착지 후 지면의 반작용 힘을 약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척추는 전체 신체 높이의 약 5분의 2를 구성하며 척추라고 하는 33개의 서로 맞물린 뼈의 수직 사슬로 형성된다.

경추(목)는 머리 무게를 지지한다. 경추는 모든 척추 영역 중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넓다. 7개의 별도로 움직일 수 있는 척추가 있다. 흉추는 주로 흉곽(가슴뼈)을 구성해 심장과 폐를 감싸며 보호한다. 요추는 크고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 몸에 오는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한다. 천골(골반뼈)은 주로 엉덩이뼈에 척추를 연결하고 골반을 형성한다. 미골 또는 꼬리뼈는 골반 주변의 근육과 인대에 대한 접속 포인트의 역할을 한다.

척추의 역할

척추에는 각각의 척추 영역이 곡선으로 되어 있다. 그 곡선들이 연결되어 자연스러운 S자로 이루어졌다. 이 곡선은 척추 전체에 걸쳐 더 많은 가동 범위를 허용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코일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충격을 흡수한다. 척추의 만곡은 전만(앞으로 구부러짐)과 후만(뒤로 구부러짐)으로 설명된다. 경추는 자연적으로 전만이고, 흉추는 자연적으로 후만이다. 요추는 자연적으로 전만, 천골과 미추는 후만이다. 이렇게 척추가 구부러진 곡선으로 이루어진 데는 운동역학적으로 기막힌 적응이 있었다. 만일 척추가 하나의 똑바른 기둥이었다면, 신체의 미세한 모든 움직임에도 몸의 모든 말단까지 따라서 비틀거려야 한다. 하지만 척추의 곡선은 매우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움직임을 허용한다.

척추가 하중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수단은 바로 디스크다. 척추에는 총 23개 추간판이 있는데, 이 디스크에는 세 가지 주요 기능이 있다. 1) 각 뼈 척추 사이에 위치한 척추에서 충격을 흡수, 2) 척추 뼈들을 연결, 유지하는 단단한 인대 역할, 3) 척추에서 약간의 이동성을 허용하는 연골 관절의 역할이다.



약할 때 문제점

〈후생신보〉의 2021년 3월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허리 통증을 경험해본 적이 있다고 한다. 통증의 대부분은 생활습관만 바꿔도 좋아지는 단순 요통이지만, 15%가량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척추 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 다리, 엉덩이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매년 증가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척추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839만7832명에서 2019년 920만737명으로 매년 2~3%씩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부터 많아져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았다. 이에 김용찬 강동경희대병원 교수는 "선천적인 척추 질환도 있지만, 대부분 척추 질환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척추에 안 좋은 영향이 축적되면서 질환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척추 질환의 요인으로는 잘못된 자세, 유전적 요인,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의 굴곡이 굽게 되면 척추 사이의 추간판이 튀어나오는 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 척추뼈 안의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관 협착증, 나아가 척추가 굽은채로 변형되는 퇴행성 척추 후만증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걷기가 척추에 좋은 이유

우선 걷기는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한다. 몸통, 허리 근육은 허리의 안정성과 움직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근육은 앉아있는 생활 방식으로 인해 약화되고 약해져 척추의 부정렬을 유발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지속하면 근육 약화, 피로, 부상 및 통증이 증가하고, 척추 근육의 전체 질량도 감소할 수 있다. 신체 활동이 감소하면 척추의 작은 혈관이 수축돼 척추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반면에 걷기는 혈관을 열어 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걷기는 근육의 독소를 배출한다. 근육은 수축하고 팽창할 때 생리학적 독소가 생긴다. 이 독소는 허리 근육 조직 내에 축적돼 경직을 유발한다. 걷기는 이러한 독소를 배출한다. 또한 걷기는 허리의 유연성을 증가시킨다.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허리와 엉덩이의 근육과 관절이 뻣뻣해진다. 이 뻣뻣함은 요추에 압력을 증가시켜 정상적인 곡선을 망가뜨린다. 하지만 걷기는 등, 다리, 엉덩이의 근육과 인대를 늘려 유연성을 높인다. 걸을 때 햄스트링, 척추 기립근, 고관절 굴곡근과 같은 특정 근육이 활성화된다. 척추인대와 힘줄의 유연성도 증가해 허리의 전반적인 운동 범위를 개선한다.

〈비바미(Viva!me) 대표〉



전법 일기

엄함 아닌 소통으로 다가가니 마음공부 참여 학생들 호응↑

올해부터 인연이 되어 마음공부를 했던 고등학생들과의 1년 마지막 수업을 지난주에 진행했다. 수업을 마치기 전에 "마음공부를 학생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스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오시면 돼요" "교양 과목으로 채택되면 좋겠어요"라는 제안을 해 주었다. 그런 피드백이 너무 고마웠는데 돌아보니 처음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된 것은 아니었다.

3월, 처음에 학교에 갔을 때는 실내체육관에서 두 반이 함께 수업을 하였다. 그때 대학생 템플스테이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소통카드로 마음열기(윤회담 형식)' 수업을 했다. 그런데 사찰에서 할 때와는 딴판으로 학생들 호기심에 불을 붙여주는 기폭제 역할을 하면서 수업 분위기는 완전히 어수선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첫 수업부터 아이들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잘 쓰지 않던 카리스마를 뿜게 되었다. 그렇게 여섯 반을 만나고 나니 완전 기진맥진했다.

그리고 3월에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요가 수업을 하는 교실에서 촛불 명상을 시도했다. 촛불을 활용하면 마음공부를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굳어 있으니 아이들 따로, 나 따로, 불멍 따로 이렇게 안타까운 수업이 진행됐다.

그러면서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림책을 준비했다. 수십 번을 수정하면서 보완했지만 자꾸만 원리 중심으로 구성이 되면서 내가 봐도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는 놓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지고 갈 수조차 없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4월부터는 한 반씩 분반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장소도 리모델링된 진로상담실로 바뀌게 됐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바꿨다. '아이들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 마음을 먼저 알아주면서 하나가 되어서 수업을 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먼저 연결해 놓고 교실에 들어가니까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가 봐요.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많아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야기가 값지고 의미가 있으면 그것으로 수업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졌다.

옆에서 수업을 도와주셨던 진로상담 선생님께서 "그동안 학생들을 엄격하게 대했는데 스님께서 지도하시는 것을 몇 차례 지켜보면서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부드럽게 대하니까 아이들이 고민도 꺼내놓고 정말 수업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어요"라는 피드백을 해 주셨다.

출가하기 전부터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종교를 떠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꿈은 이렇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다듬어지고 있다.



혜벽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공일 스님의 **바이오테크놀로지, 불교로 읽다** ⑩ 자가면역질환에 대하여

본질을 간과하지 말라

평안을 꿈꾸었는데 도달한 곳은 이에 상반되는 곳이라면? 우리 시대의 단면이 이와 비슷하다. 평화와 질서의 이름으로 전란이 일어난다.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이 오작동하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질병을 불러오고 있다. 일종의 기능항진으로 인한 역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증상들은 자가면역질환(自家免疫疾患, Autoimmune disease)으로 검토 가능하다. 이 질환은 병원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켜주어야 할 면역세포가 자신을 공격하는 증상들이다.

자가면역의 오작동은 모든 장기와 조직에 나타난다. 전신성 증상을 보이는 루프스는 물론, 특정 장기의 조직을 파괴하는 갑상선 질환과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공통적 증상은 만성피로, 발열, 탈모 및 피부질환, 안구이상과 수면장애, 관절과 근육 이상, 체중변화, 우울증, 감각이상, 기억력 감퇴, 식욕변화, 소화장애 등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압도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기술문명의 발달과 비례하여 이 질환이 대두된 것이기에 문명 질환의 다른 명칭에 해당한다. 이들은 한마디로 현대적 질병들의 총체적 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나 아토피와는 다른 해석을 요구한다.

특이한 현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그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 노화, 감염, 질병 등으로 인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증상이 좋아진다는 역설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술과 보건위생이 발달한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학기술에 의존한 과도한 노력들이 우리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문명이 그 기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다는 위험한 경고이기도 하다. 즉 본질을 간과하고 사소한 것에 집중하여 기능부전으로 진행되는 국면이다.

수행에선 본질인 '明'을 알아야
無 집중, 지엽말단 치우친 행위

면역체계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격언처럼 정교하게 움직인다. 사소한 차이를 감지하며 자기와 비자기를 감별하는 면역세포들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이다. 이 정교함이 지나쳐 자신을 적군으로 간주하는 디테일(detail)의 오류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디테일은 제거한다는 de와 꼬리를 뜻하는 tail의 합성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잘려진 꼬리를 형상화한다.

꼬리라는 군더더기를 버리고 몸통을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볼 것을 보지 않게 되는 것, 즉 본질을 놓치고 부스러기에 집중하기에 엉뚱한 것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다. 디테일과 대비하기에 충분한 개념 교사자(較些子)는 '사소한 차이의 비교'라는 본뜻으로부터 비교대상에 상당하게 된다는 의미로 전환된 것이다.

물상의 일어남과 사라짐의 근본 자리에 무명(無明)이 놓여있다. 없어야(無) 할 것을 제거함으로 깨달음인 명(明)에 도달하는 일은 불교 수행의 기본이다. 이는 본질인 명(明)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없어도 되는 무(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잘라진 꼬리라는 거두절미의 입장이 아니라 지엽말단으로 치우치는 격이다. 자기를 스스로 공격하는 자학적 상태처럼 무(無)라는 겉껍데기를 뒤집어쓰고 있는 꼴이다. 밝음(明)을 구족하고 있음에도 어두워진 상태에 주저앉은 형상이다. 불교는 본래 내재한 성품으로서의 불성을 제시한다.

여래의 종자를 간직하고 있기에 중생의 성품을 '여래장'이라고 지칭한다. 무명을 떠나 도달하는 곳이 명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본래 밝음을 구족한 실천자 보리살타(보살행자)라 할 수 있다. 단 본질을 온전히 이해할 때 그러하다.

〈봉은사 포교국장〉

기자칼럼

'텍스트 힙'과 불교 출판

최근 출판계가 새롭게 활기를 띠고 있다. 독서는 이제 단순한 취미를 넘어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는 문화로 자리 잡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는 책을 읽고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모습이 익숙해졌다. 이른바 '텍스트 힙'이라는 흐름 속에서 독서는 더 이상 지식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개인의 관심사와 정체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창구가 됐다.

실제,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3~69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독서 현황 및 동네 책방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서에 대한 관심도가 소폭 높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10, 20대를 중심으로 독서량이 과거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이 29, 26%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이는 어휘력 향상 등 자기계발의 도구로 10~20대가 독서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 힙'이라는 트렌드가 불교계 출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교 출판사들은 1쇄 발행 이후 수요를 빠르게 채우지 못해 2쇄에 들어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소수의 전문 독자층에 의존하는 출판 구조는 불교 출판사들이 불교적 가르침을 어떻게 대중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든다. 더불어 불교계 출판사가 10~20대가 소비할 만한 불교 서적을 기획하고 있는지는 고민할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동네 책방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다.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동네 책방과 협력해 불교 서적 전시와 독서 모임을 기획한다면 독자들이 보다 친숙한 환경에서 불교 서적을 접하고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텍스트 힙' 시대에 불교 출판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히 책을 내는 데 있지 않다. 불교의 가르침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급변하는 독서 환경 속에서 불교 출판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지키면서도 대중과 접점을 넓혀간다면 더 다양한 독자층이 불교를 통해 자비와 지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정현선 편집국 기자

현밀 스님의 **뭉밀이 佛스타툰**



일일시호일

아들 희귀병에 홀로 벌이는
엄마의 외로운 싸움

스리랑카 이주민 김제이씨 아들 노강현군
관절에 종양 자라는 희귀병, 이미 수술만 16번
성인 될 때까지 최소 10년간 수차례 수술받아야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흑백요리사’가 던진 화두

현불논단



성제 박준석 정사
위덕대 불교문화학과 교수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최근 화제였다. 경력이나 명성이 아닌, 오직 요리 실력만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무명의 요리사들이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명 셰프’에 도전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단순한 오락성 때문이 아니었다. 각자의 자리에서 진정한 꿈을 이루려는 이들의 진솔한 모습과 열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소위 ‘흑수저’로 태어나, 오랜 시간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노력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이들의 오랜 꿈을 이루고자 나선 고귀한 도전이었다.

여기서 불교의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해 봐야 한다. 붓다께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평등하며, 계급이나 지위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모든 중생은 그 자체로 존귀하며 누구나 깨달음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다. 흑백요리사들의 경연을 보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이들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과연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는가? 혹시 우리는 이름이나 직위, 신분에 얽매여 진정한 가치를 놓치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

‘흑백요리사’에 등장한 참가자들은 각자의 실력과 창의력으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 했다. 그러나 ‘요리의 기술’도 중요했지만, 요리에 담긴 ‘정성’과 ‘열정’은 더욱 중요했다. 불교 수행도 마찬가지다. 수행의 길은 화려한 기술보다 진정한 공덕과 선한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진정한 가치 무엇인가’ 성찰케 해
자비와 평등, 이 시대 추구할 가치

더구나 불교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강조하지 않는가. 남에게 보시할 때도 자신이 베풀고 있다는 생각에 머물지 말 것! 마치 요리사들이 요리에 담은 진심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하면 그 마음이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이리라.

이 프로그램에서는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걸어온 사람들이 한데 모여 경쟁하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인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과도 닮아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협력할 때 불교의 자비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붓다께서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며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다. 상대방과 경쟁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꿈과 열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 그 경쟁은 진정 아름다운 경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흑백요리사’는 우리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우리에게 던진다. 불교는 평등과 자비로 가는 길이다.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길 위에 서라야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른 이를 위해 손길을 건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채우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불자의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함께 걷고, 함께 빛을 나누며 더불어 평화롭고 평등한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가 아닐까.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며, 그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기를 서원한다.

AI도 바른 앎이 필요하다

세간과 출세간



지승도 교수
한국항공대 소프트웨어학과

“내 안에 너 있다!”

유명 드라마 대사지만, 지능의 원리가 담겨있다. 내(A) 안에 너(B)에 대한 바른 앎(B’)이 형성되어야만, 나(A)는 너(B)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이 지능의 원리다. 핵심은 앎이다. 우리는 앎을 통해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위한다.

그런데 번뇌는 왜 생겨날까? 삶의 문제는 언제나 앎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B와 B’ 사이의 불일치, A와 A’ 사이의 불일치 때문이다. 철학자 라캉은 말한다. 우리의 앎으로는 결코 대상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 부족함은 욕망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보드리야르 또한 앎의 태생적 왜곡을 지적한다. 주범은 자아의식이다. 관찰자(A)와 대상(B) 사이의 원초적 분리감 때문이다. 철학자뿐만 아니다. 과학자들도 시공간적으로 펼쳐지는 객관세계란 오직 관찰에 의해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라 역설한다. 그들에 따르면, 일체는 고유한 본성이 없는 바 세계는 주관적 관찰자와 객관적 대상 사이의 분리에 의해서만 존재한다. 관찰자와 무관한 시간과 물리적 세계는 환영일 뿐이란다.

붓다는 궁극적 진리, 완전한 앎을 통해 고귀한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 우리도 붓다와 같이 바른 앎과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당연하다! 붓다는 누구나 와서 보라 말씀하신다. 일체 의도 없는 머묾, 즉 수행 없는 수행, 명상 없는 명상, 알아차림 없는 알아차림이 순일하게 흐르는 가운데 시절인연이 맞아떨어져 자아의 족쇄(업력)에서 풀려나는 순간, 즉 의식과 의식의 찰나지간에 공성의 앎(B≡B’≡A≡A’≡∅)이 목도된다. 예전에 없던 일미의 앎, 붓다의 앎이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인 채 실세계 그대로 여실하게 알고 보는 것이다.

오염된 지식 습득 AI는 불량품
바른 앎이란 데이터를 습득해야

“집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보았노라!” 보리수 아래서 마침내 공성을 직관한 붓다의 감탄이다. “꼰단냐는 알았다!” 첫 제자의 깨달음을 눈치 챈 붓다의 일성이다. 깨달음은 바른 앎이다. 머묾이나, 이룸이나, 바뀜이나, 넘어섬이나, 하나됨이 아니다. 깨달으면 뭐 하나? 바른 앎이야말로 진정한 사랑, 이타행의 뿌리다. 바른 삶이다.

앎을 통해 작동되는 새로운 존재가 등장했다. AI다. 장미빛 설레임으로 시작된 AI는 공포의 대상으로 변하고 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는 물론 통제 불능의 우려 때문이다. AI도 우리처럼 앎을 형성하고 앎을 통해 행위한다. 앎의 양에서는 우리를 능가한다. 처리 능력과 속도도 월등하다. 물론 자아의식은커녕 파충류 수준의 의식조차 없는 기계덩이다. 그런데 뭐가 두려울까?

AI는 인간이 배설한 데이터를 먹고 산다. 탐진치로 오염된 이기적 데이터로 학습된 AI이기에 태생적 불량품이요 시한폭탄이다.

해결책은 바른 앎이다. 처음부터 순정 데이터를 먹여야 한다. 진리에 부합하는 바른 앎부터 하나하나 학습시켜야 한다. 그리고 판단 근거 하나하나 진리와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논증을 거쳐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진리의 앎만이 자유와 상상을 보장한다. 기존 앎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바른 앎을 발판 삼아 법답게 판단하고 행위하라는 이야기다. 일체 존재의 유토피아를 꿈꾼다면 AI뿐 아니라 우리도 알아차림을 챙겨야 한다. 바른 앎의 삶만이 궁극적 행복이기 때문이다.

社 說

후반기 시작한 18대 중앙종회에 부쳐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후반기 중앙종회 의장에는 주경 스님, 수석·차석부의장에는 태효·경암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종회사무처장은 재안 스님이 맡게 됐다.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중앙종회의장을 맡게 된 주경 스님은 종회 화합과 종단 발전을 위한 격렬한 토론과 고민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완료한 제18대 중앙종회는 정기회를 통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중앙종회는 정기회에서 2025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 원안인 909억5000여 만원을 확정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끌었던 것은 치열하고 활발했던 종책질의다. 선광 스님은 2027년 열리는 가톨릭 서울세계청년대회에 대해 질의하며 특정종교의 선교 전략을 묵인하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보인 스님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별세하시면서 양로시설로 운영될 수 없게 된 나눔의 집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제정 스님은 최근 폐사가 검토된 남산 충정사에 대해 질의했다. 두 사안 모두 종단의 주요한 현안이고, 종단의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중앙종회는 조계종의 입법기구로 사회로 따지면 ‘국회’의 역할을 한다. 집행부의 견제와 협력은 중앙종회의 책무다. 내년 중앙종무기관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반환점을 돈 제18대 중앙종회의 활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불광 50돌, 새로운 도약 기대한다

불광법회와 월간 〈불광〉은 현대 불교포교사에 중요한 성공 모델 중 하나다. 이 둘은 모두 금하 광덕(金河光德, 1927~1999) 스님의 포교 원력으로 비롯됐다. 1974년 3월 대각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광덕 스님은 그 해 9월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회를 창립하고, 11월에는 월간 〈불광〉을 창간했다.

1976년 불광법등이 창설되며 신도들이 늘어나자 광덕 스님은 새로운 법당 조성을 위한 불사를 일으켰고, 1982년 10월 24일 지금의 불광사로 법회의 터전을 옮기게 된다.

이처럼 불광법등과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포교 원력의 양축이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광사의 법등운동은 바라밀을 실천하는 운동이며, 전법을 생명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평했고, 월간 〈불광〉에 대해 서재영 박사는 “월간 〈불광〉은 광덕 스님이 펼친 불광운동의 사상적 발신지”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침이 있었지만, 불광운동은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불광사 주지 동명 스님은 지난 10월 12일 창립 50주년 기념법회에서 △기도수행 △법회 활성화 △교육사업 증진 △복지사업 및 지역사회 연대라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불광미디어는 11월 6일 열린 창간 5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진력할 뜻을 밝혔다. 광덕 스님은 법등 조직과 문서 포교로 한국불교 포교를 이끌었다. 50돌을 맞은 불광이 새로운 도약으로 한국불교 중흥을 이끌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11월 13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KOMSCO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는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장인정신과 특수 압인제품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귀금속에서 일반 소재까지 고유하고 예술성이 뛰어난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천년고찰 시리즈

통도사 금강계단 기념메달



금강계단은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의
현신으로부터 전해 받아 온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가
봉안된 곳으로 통도사 창건의 근본정신이 깃든 금강계단은
대웅전과 함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금(Au999)
중량 Weight	31.3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4,499,000원

Specifications

순도 Purity	은(Au999)
중량 Weight	31.1g
크기 Size	40mm
발행연도 Year	2024.9
외관 Finish	Proof
판매가	198,000원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Product Details





Package Design





취급 유의사항 | 소재 특성상 공기, 수분,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변색 혹은 레드스팟(붉은 점)이 생길 수 있으니 메달을 캡슐에서 꺼내지 마시고 밀폐상태를 유지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기념메달은 육안검사를 통해 모두 품질이 보증된 것입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